



‘해금강 해돋이 풍경’



▲ 통일뉴스 1월 1일자 _ 김양희 기자

· 목 · 차 ·

새해인사 권오현 • 2 / 출소장기수 기고 • 현존하는 빨치산 중 최고 기록자인 정관호 선생님을 만나다 안진걸 • 7 / 감옥에서 온 편지 권수정 외 11명 • 11 / 양심수 가족과의 만남 • 이정훈님의 부인 구선옥님을 만나다 임미영 • 15 / 회원마당 • 금강산산행기 김재현 • 20 / 알립니다 • 23 /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명단 • 25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7 / 재정보고 • 37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8

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u.or.kr 이-메일 : yangsimu@hanmail.net

자주통일 · 반전평화 · 사회진보를 위한 총단결의 해로!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 200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월항쟁 20돌이자 평화적 정권교체 승리 10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침략외세와 이에 빌붙어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냉전 사대매국세력에 맞서 자주평화 진보세력의 대단함과 연대가 요청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어려운 생활 조건에서도 양심수 후원사업에 한결같이 큰 성원과 헌신을 다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회원 여러분 가정마다에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해였지만 양심수후원회가 지향하고 목표로 했던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없는 세상, 외세강점도, 그들의 지배간섭도 없는 자주통일 세상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시퍼렇게 날을 세웠고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으로 300여 양심수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경제 대국 수출대국의 호들갑 속에 절대빈곤층은 더욱 늘어나는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일 등 제국주의 군사패권주의와 전쟁책동으로 조국반도엔 한시도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엄중한 정세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두드러진 현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시대에 그 존립명분을 잃고 실효성마저 떨어져 한때 숨죽이고 있는 듯 싶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의 발호와 함께 그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총련 대의원들이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연행과 구속이 이어졌으며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자료집

관련으로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위원장, 최희정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여든에 가까운 강순정 통일원로가 회합 통신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비전향장기수 묘역 조성 관련으로,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 때문에 비전향장기수들이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국정원장 스스로가 ‘간첩단 사건’이라며 언론 등에 공개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피의사실 유포로 무죄추정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유도하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의 해악을 끼쳤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지난 해 세밑과 새해 벽두부터 열린 재판에서 국가기밀누설이니 회합 통신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북을 통일의 동반자주체로 보고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인데 그 무슨 공작원이니 사상학습이니 포섭 지령 지시 등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인권 만민주 반통일 악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양심수후원회가 존치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회원여러분!

2005년부터 이어온 강정구교수의 재판과 함께 이 모든 사건들의 무죄투쟁을 그리고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새해에 더욱 가열차게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민족자주권과 민족생존권 그리

고 반전평화를 위한 투쟁도 치열했습니다. 6.15민족통일 대추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이라크과병연장반대와 자이툰부대철수 투쟁, 한미합동군사훈련반대투쟁 한미 FTA협정반대투쟁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투쟁으로 평화대행진, 강제토지수용저지 영농발대식 행정대집행저지 평화농갈이 농수로 차단저지 생명과 평화의 땅 사수 범국민대회 강제철거저지 투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범국민결의대회, 기자회견, 하루로 빠짐없이 진행된 주민 촛불문화제, 감지태위 원장 석방투쟁 등 평화와 생명을 위한 가열찬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공권력과 싸움은 지난해 세밑을 보내면서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대추분교와 주민들 주택의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군사시설보호지역 설치, 군투입, 철조망설치를 비롯하여 미군기지 확장 지역으로의 통행차단 수백 명의 평택지킴이 강제연행과 구속 기소와 벌금 등 대추리, 도두리 현장지키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해 들어 정부당국과 주민들 사이에 이주와 생계보전 등 협상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생존권문제와는 별도로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키기 위한 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은 현장을 옮겨가면서라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 신속기동화 등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동족을 겨냥하고 동북아 패권을 노린 침략기지 건설에 우리의 땅과 혈세까지 바쳐지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이른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다섯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

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이에 준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경제 부분에서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자본이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발전도상국가사이의 무한 경쟁은 경제예속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보건의료 금융 통신 방송 교육 전기 지적재산권 서비스산업 영화 등 해당되지 않는 부문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지구적 차원의 빈부양극화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유엔대학 세계 개발 경제연구소의 '가계자산' 국제분포고서에 의하면 2000년 기준 상위 1%가 전세계 부의 40%를, 2%가 절반 이상을, 10%가 85%를 차지하고 반면 하위 50%가 겨우 1%에 그친 것으로 런던과 뉴욕 유엔본부에서 동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하루 1달러 미만 생활인구비율은 1990년에 44%에서 2001년엔 47%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산업부분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미FTA협상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체를 꾸려 가열찬 저지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끝내 농업 부문이 개방된다면 농민들은 농토를 떠나 도시빈민으로 산업예비군으로 전락되며 때문에 비정규직은 더욱 확산되고 끝내는 사회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임금 총액 비율에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157:84 2001년도에 169:89 2002년도 182:96 2003년도 201:103 2004년도 211:110 2005년도 220:112 2006년도 226:116으로 나타나고 있어 65%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는 한

양극화해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세밀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FTA 협상저지 범국민총권기대회'가 세 차례나 잇달아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한미FTA협상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새해 들어 한미FTA 협정 제 6차 협상이 서울에서 다시 벌어집니다. 이제까지 미국원정 두 차례를 비롯하여 서울과 제주도에까지 원정하며 싸워왔듯이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을 비롯한 모든 부분의 경제와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으로 한미FTA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1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특별한 내용없는 의장성명으로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6자회담의 사실상 당사자인 이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미국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미국의대북 핵선제공격 위협 등 대북적대 정책에서 비롯된 이른바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이른바 위폐제조와 유통 등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이북금융계좌 동결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금융 경제제재 말고도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독수리연습 을지 포커스렌즈 등 잇단 군사작전으로 북을 압박하고 대북인권공세 등 대북 고립 압살 정책을 펴오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정권붕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북은 지난 해 7월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시험을 결행했습니다.

핵시험이 있기 전 10월3일 이북외무성은 성명을 내어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방어적 대응조치로서 핵억제력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며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핵보유국으로서 핵전과방지 분야에서 국제 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중국적인 핵무기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고 우리의 최종목표는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고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명 내용은 이후 6자회담에서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바로 적대시정책의 포기입니다.

그러나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는 미국의 제재해제 의지가 보이지 않음으로 다음 회의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휴회에 들어갔으며 6자회담 재개 여부는 1월 중으로 있을 것이고 예상되는 북·미사이의 방코델타아시아(BDA) 회의 결과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년 반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북의 위폐제조와 유통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불법행위의 법률문제로서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북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인 고의적인 대북금융제재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이제까지 북의 제조했다고 주장한 1백달러 짜리 위조지폐 이른바 "슈퍼노트"가 미국 CIA에 의해 제조된 가능성이 높다고 독일의 유력 언론 '푸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이 1월 7일자 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밀 특수공작에 들어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밀 인쇄소에서 위폐를 만들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7월 '인터폴'이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소집, '슈퍼노트' 문제를 논의한 회의에서 미국대표는 '북'을 위폐제조국으로 지목했으나 대부분 참석자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미국 스스로 위폐를 제조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전쟁책동은 단순히

“북·미관계 ‘로만 머물 수 있는 강건너 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을 한 핏줄로 살아온 동족에게 가해지는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시대에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9일 북의 핵시험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른 이른바 ‘대북외교 경제제조치’를 담은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유엔이 올바른 현장정신을 살렸다면 이 결의를 하기 전에 미국의 부당한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규탄하고 정지시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같은 안보리 결의가 있기 전 일본은 미사일 발사 시점에서부터 이북의 ‘만경봉호’를 입항금지를 했고 9월 19일에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개발연루업자에 송금금지를, 10월 11일엔 이북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 전쟁 포고나 다름없는 적대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 또한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이른바 ‘북미확산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켜 북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게 했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강요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바로 미·일은 사실상 우리민족 전체에게 적대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군사 패권과 특히 ‘대북군사압력’으로 이미 사실상 군사통합과 침략동맹으로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 훈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일은 태평양의 ‘이오지마’ 부근에서 일본함정 80척, 항공기 170대, 미국함정 10여척 항공모함 ‘키티호크’호를 동원한 합동군사훈련을 했으며 12월부터 한반도 유사시 상정하여 항만 영공사용 및 후방지원 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부분을 수집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2년

미·일이 합의한 ‘5055호라는 코드명 개념계획을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 레이더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기술협력을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지가 6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미·일의 공동작전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버지니아주 랭리기지에 있는 F-22 랩터전투기(최신 스텔스기) 12대와 장병 250여명을 오키나와에 배치한다고 했으며 뉴멕시코주에 기지를 둔 제 49 전투비행단 소속 F-117A(스텔스기) 1개 비행편대와 300명을 1월 11일 군산 비행장으로 이동배치 했습니다. 이 전폭기는 4개월간 이 땅에 있으면서 대북전쟁역지력 강화 훈련을 하면서 3월에 있을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에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북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핵무기를 탑재한 B52전략폭격기들이 ‘팜’기지를 이륙하여 급유를 받으며 남조선 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대상물 타격연습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은 대북군사압력을 가하면서 위에서 보았듯이 외교 경제 제재 그리고 지난해 11월 17일 이른바 대북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채택되게 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권붕괴를 노린 모든 수단을 다하는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위에서 말했듯이 미·일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 책동은 바로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존엄과 이익에 대한 도발이면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에서나 북에서나 해외에서나 우리 민족이라면 이같은 미·일의 제국주의·군사패권주의와 전쟁책동에 맞서 민족 대단합으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정부는 6,15공동선언시대에 반하는 한·미·일 공조에 아직도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부산에서의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키게 한 대북제재에 동참하여

남북사이의 대화가 끊기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 스스로 말했듯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가장 앞장서고 있기도 합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한결같이 이어온 남북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바로 비료 식량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개성공단 추가 입주지연, 금강산 관광지원책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인권결의안을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대북특사 등을 통해 당국자 대화를 복원하고 어떠한 외세의 압력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사업 그리고 자주통일로의 민족노선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2007년은 매우 큼직한 두 가지 일에 눈을 돌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6자회담으로 그것의 성패에 따라 조국 반도에서의 평화와 발전을 담보하느냐 아니면 미, 일 등 군사패권주의의 대북제재와 이에 맞선 억제력 제고의 긴장연속이냐를 갈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핵억제력을 확고히 갖춘 조건에서 부당한 대북적대정책으로 얻을 소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달 하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2차 방코델타아시아(BDA)회담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전망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등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전체에 대한 반평화 전쟁책동으로 간주 민족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한 반미반전 연대투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입니다. 6월 민중항쟁 20돌이기도 한 오늘의 정치기상도는 매우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6월 항쟁의 참뜻이 권의주의 체제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구 해체 노동자대투쟁 등이 포함되고 있듯이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개선 사회진보 그리고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었습니다. 오늘 수구냉전세력의 말호는 국민이 요구하는 자주와 평화와 진보에 대한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다고 수구 냉전 사

대매국집단으로 정권이 전은 역사발전과 사회진보의 방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 오랜 연구와 토론 준비 끝에 진보진영의 총단결체 ‘한국진보연대(준)’가 출범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여성 정당 등 19개 부문 단체와 3개 지역단체만으로 우선 준비위가 출범했지만 진보적 지식인 중요한 시민사회단체까지 자주통일과 사회진보의 모든 부문의 본조직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준비위는 선언문에서 한국진보진영은 운동의 분산성으로 투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지 못했음을 통감하면서 각계각층이 생존의 쟁취투쟁을 위한 연대투쟁을 넘어 반신자유주의세계화투쟁 반미반전 평화투쟁,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아직 준비위 출범단계에 있지만 본조직 결성에서는 아쉽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세와 분단시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6.15공동선언시대 진보의 개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자주통일 투쟁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조직을 계기로 대선 투쟁에서 평화와 진보세력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저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2007년 1월
민가협양심수 후원회 권 오 현

“그날 쓰러져간 모든 이들 위해 나는 기록하리라”

- 현존하는 빨치산 중 최고 기록자인 정관호 선생님을 만나다. -

안진걸 | 희망제작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를 참 좋아합니다. 티셔츠도 즐겨 입고요. 그런데, 체 게바라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했던 전설적인 혁명가가 남한 땅에 수천 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모릅니다. ‘패배한’ 혁명(소설 태백산맥은 현실투쟁에선 패배했지만, 역사투쟁에선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이



라 더욱 가슴시린 그들의 숭고한 투쟁과 서러운 죽음... 그들이 바로 불굴의 전사, 빨치산들입니다. 자국의 반동적 지배계급에 맞서 봉기하고, 세계 인민들의 적인 미 제국주의와 투쟁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 온 생을 바친 체 게바라와 빨치산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빨치산’을 존경한다는 말은 지금도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빨치산을 예전부터 가장 존경해왔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제 존경의 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한국전쟁의 성격과 책임에 대한 역사적 논의 속에서 ‘빨치산’들의 성격과 활동에 대한 깊은 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오로지 조국해방과 인민해방을 위해 스스로 떨어져 일어나 산 속에서 온갖 고통과 함께 처절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반드시 정당하게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그들의 활동과 진실에 대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조망되어야 할 것입니다.

빨치산은 누구입니까. 해방 후 대다수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최대한의 투쟁가이자 한신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옆집 머슴과 동네 아저씨와 아낙네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일 똑똑한 지식인 청년부터 존경받던 학교 선생님까지... 그 모든 이들이 당시 새로운 상전으로 미제라는 외세를 모시고, 친일파를 다시 득세시키며, 지주와 자본가처럼 소수 일부자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승만 일파에 맞서서 필연적으로 봉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생존과 투쟁을 위해 불가피하게 입산한 사람들입니다.

언제쯤이 되어야, 좀 더 자유롭게 빨치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빨치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까요? 그날을 그리워하며, 또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보며 여기 빨치산 생존자로 빨

치산 역사의 최고 기록자인 정관호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정관호 선생님의 소설 <산사람들>이 어서 빨리 정식으로 출간되길 기원합니다. 또 이북에 계신 8형제와 하루빨리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써야 할 일입니다. 모든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한재 2.....

여수 순천 의의로운 병사들이
항거의 총성을 울리면서 네 허리를 지날 때
너는 반란의 고개가 되었고
그들을 선봉으로 한 이 고을저 고을의 전사들은
반란군이라 불리는 세력으로 자랐다.

한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앞서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친일 매국 세력들이
그들의 상전이 된 점령군의 주구노릇을 하며
이 땅 구석구석 숨통을 틀어막으니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들고 일어나
드디어 인민항쟁이 시작되다.

그 말미암은 원한의 뿌리는 깊고
막아선 압제의 아성 또한 견고하니
전쟁터에서 바로 옮겨온 강력한 무장 앞에
정의만을 믿고 덤벼든 인민의 항오는 만주먹

(중략)

인민들은 생존을 걸고 나섰고
반인민세력은 무력으로 짓밟았으니
그 귀주는 자못 명료했다
“우리도 무장하자”

적의 손에서 육탄으로 빼앗은 무기로
노동자농민이 무장하기 시작했으니
그 이름 야산대
죽창나 도끼 쇠스랑까지 들고 합세에
그 기세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갔다.

거기에 나라를 두 토막으로 가르려는
반역의 무리들이 앞을 가로막고 나서
기어 이단 독정부를 수립하고 말았으니
겨레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드리웠고
양보 없는 맞대결의 싸움은 격화되어 갔다.

이때 터진 것이 이른바 14년대의 봉기
그 총소리는 흩어져 있던 세력들을 규합하는
한 단 계 높은 싸움으로의 신호였으니
드디어 이 강토 산야에 빨찌산의 깃발 오르다

여수 순천 광양을 거쳐
백운산에서 대열을 정비한 봉기군 주력들은
삼진강을 내려다보면서 지리산 문수굴로
여기 이 한재를 넘어 갔노라.

-정관호 선생님의 서사시 '한재' 중. 한재는 전남 광양의 백운산의 고개 이름으로, 정관호 선생님을 비롯한 전남의 빨치산 부대들이 투쟁하던 곳이었다.

-일제 때 태어나니, 항일운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925년 함경 북청에서 태어났어요. ‘북청 물장수’의 그 ‘북청’ 이에요. 자라서 북청농업학교에 들어가 독서회 활동하면서 항일에 눈떴더니 1942년도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농민들에게 검거됐지요. 일명 독서회 사건이에요. 그래서 함흥 형무소에 수감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18세였는데, 전기고문, 물고문 같은 것을 혹독하게 당했어요. 그게 살면서 평생 몸에 남아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44년 초에 출소했는데, 일제의 감시를 받았고 그 감시 속에서 45년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당시에는 러시아 문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접했었는데요, 그런 책들을 원전으로 보다보니 러시아어를 공부하게 됐고, 그렇게 평양 노어대학(후일 평양 외국어대)을 들어가서 4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우리가 졸업할 때 김일성 주석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못 만나고 당시 백남운 교육상(일제 때 저명한 경제학자로 월북 인사)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평양 노어대학을 졸업한 후에 원산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49년에 원산 교원대학에 러시아 말과 문학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그러다 전쟁을 맞이

하게 된 것이죠.”

-당시 학생, 지식인들에게는 러시아 문학의 영향이 대단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저희들이 학생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문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톨스토이, 고리키, 투르게네프... 등등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 인민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이 되기도 했고요. 다들 러시아 문학 서적을 참 많이 봤었죠. 아마 이북 지역은 러시아 접경이라서 더 많이 봤을 것이에요.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의 영향도 참 많이 받았고요. 한국 문학에서도 상록수(심훈), 흙(이광수), 고향(이기형) 등의 농민계몽형 소설들도, 그리고 한철야, 조영출, 최서해 같은 작가들도 그 흐름에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교수라는 안정된 직장에서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50년 전쟁이 나면서, 저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각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 여름방학 1달 세미나 중이었거든요. 평양 순안 인민학교 강당에서요. 그런데, 상층에서 ‘방학 동안에 남반부에 가서 할 일 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르고, 바로 거기서 200여명의 교수들이 기차를 타고 짐 챙겨서 남반부로 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전쟁이 난 것을 알게 됐죠. 당시에 국가동원령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황해도 신막 즈음에서 새벽에 미군 비행기의 습격을 받아서, 기차가 더 이상 못가서 내려서 트렁크 들고 걸어서 해주, 개성, 서울로 갔어요. 당시 교육성 출장소가 해화동 구 서울대학교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전남 강진에서 교육 사업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죠. 그렇게 전남 강진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게 강진으로 가시게 된 것이네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강진으로 갈 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이었어요. 낮에는 공습으로 못 걷고, 밤에만 걸어서 광주 도당을 거쳐서 강진으로 갔지요. 거기서 한 달 동안 초중등 교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어요. 제 전공인 러시아어와 문학을 교육하기도 했고요, 전쟁의 성격에 대한 교양도 했고요. 그렇게 4-5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황이 반전됐어요. 50년 9월27일이 추석이었는데, 9월 28일, 인민군이 밀려서 서울 이북으로 물리기 시작한 사태가 있었지요. 저희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9월 29일 새벽에 김일성대학 학생으로 강진에 와있던 사람이 막 깨워요. 당장 춘천으로 집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종강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학관(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위원 사무실)에게 갔더니 시학(교육위원)이 남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군은 모두 철수했으니 저희들도 빨리 가라고 하면서, 자전거 2대를 주대요. 그래서 자전거 2대를 가지고 당시 동료였던, 교육시설 생활학과장이었던 박 모 과장과 함께 춘천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금방 고장 나고...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걷다가 그만 영산포 즈음에서 박 모 과장과 헤어지게 됐어요. 박 모 과장은 그 후로 소식을 못 들었어요.

행방불명이 돼 버렸죠. 혼자남아 밤에 이동하는데, 공포와 외로움, 두려움 같은 것이 엄습하기도 했었죠..”

-그럼, 그때 빨치산이 되신 건가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밤에 이동하다가 인민군 낙오병 불빛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고나니 그들이 다 가버렸어요. 군인들로서는 비군인 종사자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때 엄청난 고뇌와 갈등을 하게 됐지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동안의 제 지식과 교양을 다 동원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비합법지시 루트인 이른바 ‘선’이 떨어진 나로서는 추천으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여기서 남아서 투쟁하고 할 일을 찾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바로 뒤로 돌아서서 ‘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강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장흥군에 있던 유치산으로 입산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장흥군당, 강진군당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강진군당으로 합류하면서, 빨치산이 된 것이죠. 이때가 50년 말입니다.”

-당시 그쪽 빨치산 상황은 어떠셨나요? “당시 전남도당(위원장 : 박영발)이 전남지역의 최고 지휘부였는데요, 도당은 후퇴하지 않고 남아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남았습니다. 전남도당이 광주, 목포 2개 시에, 21개 군을 관할하고 있었죠. 전남도당은 전쟁시기인 만큼 별도의 무장조직으로 유격대를 조직해서 유격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유격대는 당이 결정하면 무력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했지요. 저도 강진에서, 월출산에서 강진유격대와 행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남도당에서 호출을 받게 되요.”

-전남도당에 호출돼 다른 역할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교수 출신이고, 러시아 문학을 공부한 것을 알고 전남도당 선전부에서 호출을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전남도당 선전부 소속으로 전남 노동신문 편집인, 즉 전남 노동신문 주필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남반부 노동신문 중에는 제일 장수했지요, 최다 발행을 했어요. 신문은 조선중앙통신을 무선으로 수신한 내용과 각 유격부대 통신원들의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했어요. 한지 타블로이드판이었고 1천부를 찍었었죠. 그래서 전남도당 소속 부대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했었죠. 레닌이 말한 것처럼 저희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조직자”였죠. 당시 노동신문 영인본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신문을 찍었던 등사판은 백운산(전남 광양에 위치) 어디엔가 묻혀 있을 것이예요.”

-상황이 점점 나빠졌을 텐데요, 어떻게 버티셨는지요? “그랬죠. 전남 노동신문도 처음엔 천부를 찍었고, 나중엔 오백부로 줄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저도 주필 일만 했지만, 나중엔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되지요. 보급투쟁에도 나섰고.. 당시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하루 밤 만에 100리를 뛰어 다녔어요. 정말 다들 대단했었죠. 그렇지만, 51년, 52년, 53년 갈수록 상황이 악화됐어요. 수없이 많은 빨치산들이 죽어갔죠..

그 과정에서 두 번의 큰 토벌이 있었어요. 한번은 51년 겨울에서 52년 봄까지 1차 대침공이었는데요, 10만 병력이 투입됐어요. 수도사단, 8사단을 중심으로 대침공을 감행해 그때 영호남 일대 빨치산들이 거의 전멸상태가 되요.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53년 겨울에서 54년 봄까지 2차 대침공이 있었어요. 그때는 5사단을 동원했는데요, 이때 그나마 남은 세력이 거의 모두 전멸하게 되지요. 박영발 전남도당 위원장이 54년 2월 21일 전사했고요, 전남도당 김선우 유격대장이 54년 4월 5일 전사해요. 그렇게 저도 쫓기다가, 결국 54년 4월 8일 백운산에서 검거되고 말았어요. 땅속에 숨어 있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총상을 입고 굴에 있다가 검거 됐는데, 이미 그때는 거의 모든 동지들이 죽거나 검거된 후였죠..”

-54년 수감돼 언제 나오셨는지요? “61년도에 출소했어요. 제가 출소하니까 막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살벌한 국면이었고요, 또 75년인가는 사회안전법인가를 만들어서 보안관찰을 했어요. 제가 이북 지식인 출신에다가 빨치산이었으니까 감시가 살벌했어요. 집안에 들어와서 뒤지는 일도 비밀비재했지요... 그래서 특별한 활동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생업에 겨우 종사하면서 살아왔지요. 제가 교도소를 전주, 대전, 마산, 마포, 대구 교도소로 다녔는데 대구에서 만난 한 잡범 친구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전북 익산에 정착했다가 나중에 서울에 와서 도로포장 일, 목장에서 목부일, 출판사 일 등을 하며 살아왔어요. 87년 6월 항쟁이후에 그나마 감시가 좀 덜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함께 사는 아내는 68년도에 만나 결혼했었죠. 그런데, 현재 치매로 고생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당시에는 당국에서 결혼 안한다고 시비를 많이 걸기도 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예전 빨치산 동지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었죠.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아는 체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93년 이인모 선생님 북으로 송환될 때 다시 예전 분들과 연락이 돼서 그래도 지금은 소식이라도 주고받고 살아서 다행이에요.”

-선생님의 삶에서 빨치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4년이 제 전반생의 집약체이면서, 후반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한시도 그 시절의 일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54년 검거될 때부터 나는 꼭 살아남아서 어떡해든 이 빨치산들의 숭고했던 삶과 투쟁, 죽음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빨치산 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또 남긴다 해도 빨치산 전체 상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빨치산의 생생, 투쟁, 전멸 전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록을 하셨는지요? “그동안은 감시가 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나마 김영삼 정부 말부터는 조금씩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으로 <꽃 되고 바람 되어>

를 낼 수 있었어요.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남대천 연어> <풀 친구 나무 친구> <한재> 이렇게 3권의 시집을 더 냈어요. 이중 '꽃 되고 바람 되어'와 '한재'는 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한 시집이고요. 나머지 두 권은 생태적인 내용입니다. '꽃 되고 바람 되어'만 해도 표현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한재'는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소설 <산사람들> 6권이 있어요. 이 소설은 완료했는데, 비공식적으로만 출간됐어요. 지금 출판사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아직 출간하겠다는 데가 없네요. 지금까지 나온 빨치산 책들보다 훨씬 더 빨치산 문제를 생생하게, 제대로 다루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6권의 소설이라면, 굉장히 큰 작업이었을 텐데요. 언제 다 쓰셨나요? "감시 때문에 꼭 못쓰고 있다가, 99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2006년 8월15일 날 정확히 마무리했어요. 한 7년을 매달렸지요. 소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픽션이지만, 제가 직접 겪고 들은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지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다시 현장을 답사했고, 다시 관련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경찰·군인들이 낸 '토벌사' 같은 책도 다 섭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빨치산들의 입산, 무장, 투쟁, 사랑, 배신, 복수, 죽음의 모든 드라마를 쓰게 됐습니다. 경제적 여력과 시대 조건, 체력이 모두 좋지 않아 인생 말년에 겨우 쓰게 됐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글을 다 쓰고 나니까, 대장암이 찾아왔어요. 글을 다 쓴 후여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작년에 큰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도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 나이도 올해 83세인데, 어서 이 책이 어떻게든 세상의 빛을 보아야 할 텐데요... 그게 그 많은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욕심 같아서는 이남의 모든 국민들이, 한반도의 모든 젊은이들이 봐주었으면 해요."

-빨치산 역사의 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정사라고 하면 100% 사실이어야 할 테니 딱 정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사라고 한다면,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노동당 전남도당 투쟁 역사' 이런 식으로 구성할테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약간의 상상을 덧붙였으니 정사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자기가 있던 지역 외의 경험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총괄하는 '픽션의 다리'를 건너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예술적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산사람들>은 제 경험에다가 '예술적 진실'이 가미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사에 아주 근접한 소설입니다."

-빨치산 이야기를 꼭 쓰셔야겠다고 생각하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빨치산들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 인민해방전쟁이라고 여기고 참여하다 모두 죽었지요. 이다음에 근대사를 정리할 때, 역사의 격랑 속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빠지거나, 빨치산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

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글을 쓰게 된 것인데요, 빨치산의 역사가 패망의 역사였다 해도 그것을 그냥 묻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대한 역사거든요. 빨치산은 각기 다른 계급·계층·성분 출신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도덕성, 연대성, 동지애로 뭉친 고결한 공동체였어요. 일제를 겪은 그들로서는 조국의 완전독립을 바랬던 것이고, 힘없는 인민들의 제대로 된 해방을 바랬던 것이어요. 이게 빨치산들의 꿈이었고, 그 꿈이 송고했기에 제가 반드시 기록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가장 고결한 시기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54년 잡히던 순간부터, 이런 고귀한 삶과 투쟁, 죽음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여성 빨치산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여성 대원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었죠. 못 먹고, 체력도 약한 데 한번 쫓기게 되면 군경들이 '여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남자 행세를 하곤 했었죠. 생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의 신경을 못 쓰고 남자 행세를 해야 하고 하니... 나중엔 사람이 중성화 돼서 생리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여성 대원들은 군경들에게 잡히면 성적으로도 엄청난 모욕을 당했고요. 죽어서도 남자 시체의 성기를 잘라서 여성 빨치산의 성기에 꽂아 놓는 만행을 당해야 했어요. 조국이 일제에 이어 미제에 강점되고 분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없는 대다수 인민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싸워야겠다고 입산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희생을 겪은 것이죠."

-다시 태어나도 빨치산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만약, 다시 태어나도 조국이 외세에 신음하고,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빨치산이 되었을 겁니다. 역사가 묻거든요. '조국이 위태로울 때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 변혁기에 너 어디에 있었느냐?' 그 물음에 땀땀이 답할 수 있다는 자량과 궁지가 제겐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같이 고생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평화의 기본은 자주·자결입니다. 그것이 짓밟힌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전평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자주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가족이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9형제 중에 둘째였어요. 결혼 전이라 아내나 자식은 없었고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테고, 형님은 군의관이었는데 마지막에 원산에서 잠깐 뵈고 지금까지 소식을 몰라요. 나머지 8형제 소식을 모두 모르는 것이죠. 이산가족 상봉신청은 해봤는데, 아직 생사확인도 안되었으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권수정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안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투쟁하다. 실형 8월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권수정입니다. 현재 항소 끝나고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구요 7.13일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었으니 열주 항소재판 끝날 때쯤이면 8개월 다 살고 만기출소 하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살다보면 뒤도 안보고 달려갈 때가 있고 한 호흡 고르며 쉬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지만 왜 더 잘 싸우지 못했을까 아쉽기는 합니다.

경쟁해서 밟고 올라서 이기는 것만이 최고인줄 아는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에 빈손으로 살아도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을 현실에서 이루려 노력하는 동지들과 넉넉하게 나누면 이미 해방입니다. 동지들 덕분에 겨울철 옥살이 열심히 운동하며 씩씩하게 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요즘 신문을 보니 적들의 공세는 무섭고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부족한듯해 생각나는 노랫말입니다 부디 한꺼번에 되찾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이 카랑카랑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6년 12월 17일 권수정



정승중님의 편지

양심수후원회식구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 산 시점 늘 감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만남의 집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들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남의 집 모든 가족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저 하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06년 12월 11일 대구교도소 정승중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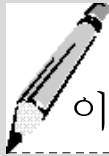
윤치고님의 편지

회장님 안녕하세요

2006년에도 보살펴 주시고 하여 감사합니다.

2007년에도 가정에 화목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06년 12월 8일 춘천교도소에서 윤치고 드림



이지경 님의 편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07년에도 양심수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양심수후원회 가족 여러분께 가슴 속 한과 분노의 응어리만 가득 채우고 2006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강하게 투쟁하지 못했던 것이 가슴 속 한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단체가 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 사회가 변혁되어 가는 한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매달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양심수후원회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더 힘찬 투쟁을 위해 더 단단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 감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대구교도소에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올림



박해욱 님의 편지

권오현 회장님 건강하십니까?
연로하신 연세에도 양심수들의 권리를 위하여 앞장 서시는 회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염려하여 주시는 덕분에 저는 잘 있습니다. 이 사회 각 분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금년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수난 받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곳 대구교도소에 포항동지 27명을 포함하여 건설노동자 30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회장님같은 후원단체는 우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2006년 12월 17일 대구에서 박해욱드림



유기수 님의 편지

포항교도소에 있는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유기수입니다.
어제 화물연대 동지 2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지만 양심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는 좀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6년 12월 13일 포항교도소에서 유기수드림



성락정님의 편지

존경하는 권오현 회장님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투쟁·대추리투쟁·포스코투쟁·등
등 올 한해에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감옥은 노동자들로 넘쳐나고 비정규
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길거리에서 어깨 걸고 투쟁할 동지들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투쟁의 전
선에 설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여하한의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따
뜻하게 보살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민중의·노동자의 희
망의 빛으로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흥에서 성락정 올림



박정훈님의 편지

권오현회장님 그리고 양심수후원회 동지들! 안녕하세요

1년이 넘도록 정성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소식 한 번 전하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올려 송구스럽
습니다. 보내주신 책들과 영치금에 마음속 깊이 감사합니다.

후원회 소식지에서 출소장기수 선생님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곳 생활을 하는데 큰 힘과 용
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련의 역사에서도 신념과 양심을 잃지 않으시고 순결하고 참다운 삶을 사신 장기수
선생님들의 삶에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 배우고 치열하게 살 것을 다짐하곤 합니
다. 양심수후원회의 따뜻한 정성에 금속성 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포근한 정을 느끼게 합니다. 민족21은
구독해서 보고 있으니 다른 동지들에게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물날 박정훈드림



김정덕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여러분께!

권회장님 민가협어머님들과 후원회원여러분 비전향 장기수 어르신들 목요집회 및 활동 소식 '소식지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어르신들과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의 소식에 많은 눈물
흘렸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닌 눈물을 빼게 하는 것이 국가라는 조직체라면 그런 조직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물적 정신적 도움
에 힘든 수용 생활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연시 회장님이하 모든 회원과 관계 동지
들이 무탈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2006년 12월 13일 김정덕



최희정 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들께

저는 서울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는 최희정입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에게 ‘양심수’라고 불러주시고 항상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보내주시는 소식지와 영치금은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임기란어머님과 유민호어머님 조순덕어머님과 함께 면회실을 그득하도록(비록 잠시였지만) 웃은 얼굴로 많은 분들이 힘내라 말해주셔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따뜻한 방에 편히 쉬셔야 될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직도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젊은이들의 앞에 서계시는 것이 한편으로 마은 든든하면서도 아프답니다. 정말이땅에 ‘양심수’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구치소에서 최희정드립니다.



엄기준 님의 편지

권오현회장님을 비롯하여 후원회 동지들 건강과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많은 기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2006년 12월 엄기준드립니다



전옥용 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님께!

보내주신 영치금과 편지 민족21.1월호와 후원회소식지 182호 감사하고 소중히 잘 받았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며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그리고 애써 노고하심에 거듭거듭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하시는 일 모두 여일하시기를 그럼 이만 부족한 글 줄입니다.

2007년 1월 1일 광주교도소에서 전옥용 삼가 씁니다.

통일염원이 곧 우리의 중심입니다.

- 이정훈님의 부인 구선옥님을 만나다. -

임미영 | 사무국

검찰은 12월 8일 이른바 ‘일심회’사건의 중간발표를 한답시고 이렇게 말했다.

‘평소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피의자들은 북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아국내정세 동향 특정 정당 당직자 신원분석자료.....등을 건네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미활동 동향을 전하고 등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이룩하지는 의미로 일심회를 조직하는’

6.15공동선언 후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저들 말대로 6.15공동선언시대에 웬 간첩놀음인가! 검찰은 6.15공동선언의 합의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곧바로 물어야 될 일이다. 공동선언문은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제1항으로 하고 있다. 자주적 해결의 대전제는 모든 의구심과 적대감을 접고 서로 열어 통하고 오고가는 것이다. 서로 통하지 않고 언어지는 것은 불신과 적대감 뿐이다.

그러나 그런 대전제조건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누가 뭐래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이다. 일찌감치 미국에 종속되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다름아닌데 그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침예하게 북과 대립하여 그들을 말살하려 온갖 폭력과 야만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의 인민대중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족공조를! 반미를! 부르짖지 않을 수 있는가? 그때조차 여전히 미국침략자들을 위해 주단이라도 깔라는 말인가. 참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 민중의 소리

이른바 ‘일심회사건’으로 양심적구속자가 된 이정훈님은 50여 일간의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재판정에서 모두진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공안기관이 만든 짝퉁간첩사건이다’라고 이정훈님은 여전히 80년대의 민족 민주 민중해방투쟁이었던 삼민투투쟁을 이끌던 사람으로서의 신념을 잃지 않고 스스로 반미 민족민중주의 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상과 ‘남북공조론자’이며 남북이 오해와 불신을 끝내고 이제는 더 이상 외세에

기대거나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천명했다.

이즈음의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숨은, 어두운 속내를 가진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면, 참된 지식인이면 누구나 사회 변혁운동에 등을 돌릴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이 나라가 더 이상 선진화되고 진보된 사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정훈님은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서 가장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한 것이 왜 기밀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며 왜 일심회라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회의 일원으로 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이 7·80년대의 독재시대에서나 써먹던 수법을 지금도 개인의 고유한 사회 경제 학문 활동을 압살하기 위해 써먹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폭력이 한 개인을 다만 감옥에 가두고 온갖 부당한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 한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엇그제 만나본 이정훈님의 부인 구선옥님도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사람이다.

구선옥님을 만나기로 하고 홍대지하철 역에 도착했을 때에 차가운 저녁 바람 속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쁘고 고단한 중에 시간을 내 준 것이 못내 미안했다. 이정훈님이 수감된 후 남편의 사무실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 구선옥님은 처음에는 거의 매일 지금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서너 번을 남편 면회를 가야하고 또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돌보는 일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에 잠깐 이정훈님의 면회시간에 동석한 후에 두 번째 만남이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씩씩한 모습이었다.

딱히 취재가 아니라 위로하고 우리 양심수후원회가 동지적 입장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려 만난 것이므로 전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나는 구선옥님이 남편 이정훈님 뿐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장민호씨와 이진강 손정목 최기영씨의 재판정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아는지라 우선 장민호씨는 어떠한가고 물었다.

모두들 그러하겠지만 장민호씨도 처음보다 지금은 훨씬 재판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서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장민호씨가 재판 준비를 하면서 답답해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1차 심문 때에, 검찰측에서는 엄청난 분량으로 복구된 파일과 이리 저리 취합한 자료를 오직 검사만 가지고 있고 대충 장민호씨에게 보이고는 이 자료를 작성했는지의 여부만 물어서 변호인들도 판사도 그 문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등 부당한 재판절차가 문제가 되었고 특히 장민호씨의 경우 미국에서 오래 살아와서 우리나라의 재판절차에 대해 낯설고 국내의 재판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시했던 문건들을 변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재판정에서야 비로소 변호인들이 '우리는 저 문건을 알지 못한다. 그 문건은 심문 내용인데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검찰측에서는 양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증거로 쓸 것만 쓰겠다는 억지를 부려 그것 때문에 재판이 있을 때마다 논

란이 되었다고 한다.

검찰측에서는 어떻게든 이른바 '피고인' 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재판정에서도 절차와 약속을 빈번하게 어기고 그러나 보니 이른바 "피고인"들과 관계된 사람들 간에도 이간질을 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구선옥님은 그나마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사람들>을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정훈님이 작성한 문건은 당원으로서 정당한 당내활동-시당 지역분석하고 민노당의 총선 방향 등-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인데 그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그 자체로 죄를 지은 것처럼 검찰측에서도 몰아가고 있고 정당활동 자체가 죄악시되고 또 보수수구 언론이 주도하는 조작된 여론에 의해 사람들이 흑한다는 것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한다.

구선옥님은 남편이 가정에서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은 그 과묵함 속에서도 남편이 자기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일편단심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소영 웅주의적인 통일운동을 지양하고 현재처럼 누가 적인지를 알기 어려운 때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순수하게 지켜온 열정에 자신도 동조하고 도우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정훈님의 일상은 통일염원으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학문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려는 목적에 기인된 것이지 지식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당연히 유학생들 중에 아시아지역학 동북아시아 국제관계학 등을 전공하였는데 남북 통일에서 북미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통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학문을 하는 것조차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삼았다. 가정생활도 학문도 자녀교육도 사업도 전부다 그러하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정훈님에게는 <통일>을 떠나서는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나는 한숨 돌리기 위해 그러한 이정훈님을 언제 만나게 되었는지 물었다. 구선옥님은 뜻밖의 물음에 웃음을 보이며 남편을 만나게 된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

다. 구선옥님은 20세 초반에 지금의 엘지그룹이 된 금성사의 해고노동자여서 복직투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정훈님은 미문화원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서 그해 수원지역으로 노동운동을 하러 내려와서 일이년이 지났을 때 수원지역에서 만났다.

“학습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일선에 있었지만 노동법을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투쟁에서 필요한 것은 기독교노동자 회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직장사례 발표도 하고 세미나에 나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다른 부분에서 참석을 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다보니 같이 보는 시간이 많고 학습도 하고 성격도 파악하게 되었는데 투쟁일선에서는 단호하지만 평소에는 매우 조용한 사람이에요. 참 오늘이 결혼기념일에는 어제 편지가 왔어요.” 구선옥님은 잠깐 가방을 살폈는데 아마 편지를 집에 두고 온 모양이다. 옛날이야기를 세록세록 재밌게 써서 보냈다고 그 편지를 보면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은 워낙 어려서 이정훈님에게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노라고. 나는 스무살 초반의 나이를 가늠해보아 그랬을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사회변혁운동에는 관심을 가진 것을 보면 오히려 또래들 보다 조숙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사연이 많죠. 우리는 반공교육 세대였잖아요 지금 생각하니 그딴 잘못된 것을 왜 열심히 배웠나 싶어요. 제가 가정형편상 학교졸업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뛰어 들었는데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졸업하고서점에 가니 너무 재밌는 책이 많았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가 86년도 무렵이에요. 입사하니 노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입사하면 무조건적으로 노조조합원이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87년 노조 붐이 일어나고 금성사 창원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있고 그곳의 노조지도부들이 연대 파업선전을 하려 평택공장에서 왔어요. 여름이었는데 서른 살이 넘어 보이는 건장한 아저씨들이 너무 멋있어서 사람이 저 정도는 되야지 하고 또 파업이라는 것도 해야 한다. 그래야 내 권리도 찾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저희 공장에 학생운동출

신들이 위장취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부서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자연스레 노동자투쟁을 접하게 되고 8월부터 연대파업하고 철야농성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노동운동을 운 좋게도 학생운동과는 질을 달리하는 순수한 노동현장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구선옥님은 그때 몸에 익은 노동투쟁의 본질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현재의 합법적 파업이라면 사용자들이 정해준 방법과 장소에서 이렇게 놀아라 하면 그 안에서 놀다가 끝나는 것은 진정한 파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업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주동자 적극가담자 등으로 분류되어 해고처리되든지 부서이동이 있든지 하는데 구선옥님은 부서이동 처리되어 현장에 일하던 사람을 사무실에 이동시켜 노무관리부에 이동배치되었다. 노동자를 감시하는 부서에 옮겨져서 자신은 할 일이 없었지만 비교적 잘 버티고 있었다.

“제가 고집이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안나가니까 드디어 해고를 시켰어요.”

나는 지난 나의 스물을 문득 떠올리며 일찌감치 진보적이었다고, 정말 구선옥님이 존경스러워서 말했다. “저는 그랬어요 그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재미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찍 하게 된, 철이 좀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환경이 어려우면 철이 들고 빨리 성숙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선옥님은 현실에 빨리 눈뜨게 되어 그런 현실에 자신을 지혜롭게 적응시켜나갔다. 용인시 남사면이 고향인 구선옥님은 자신이 성장기에 시골에서 자랐다는 것을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 했다.

용인이 그 당시 시골이었냐고 물었다.

“네 진짜 용인이요. 생겨진천 사후용인 말 그대로였어요. 한겨울에 노루가 뛰어놀던 곳이에요, 지금의 수지죽전은 워낙 개발이 심해서 어릴 때 시골풍경에 익숙한 저로서는 그곳은 진짜 용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인이나 남한의 전역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안다면 구선옥님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남사면은 오산과 평택과 용인의 행정구역경계이고 행정구역으로 치면 오산쪽에 가깝죠. 지금은 축산연구소가 들어서면서 축산시험연구단지를 만드느

라 산을 다 깎아내서 대관령초지처럼 바뀌었지만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덜 파헤쳐진 것이 다행인거죠. 그곳도 마을이 대부분 농지인데 땅의 주인은 대부분 도회지 사람이라고 해요.”

민주노동당이 그런 불공평하고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하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선옥님은 남편 이정훈님에게 팬스레 이런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잘못된 당의 운영에 대해 지청구를 늘어놓기도 한다고 한다.

구선옥님은 노동운동에 대해 실질적이고 야무진 견해를 갖고 있다.

“사실은 저도 현장노동 경험을 가진 사람이지만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노동자 스스로 안으로부터 깨고 나가기 쉽지가 않은데 최종적으로 깨기 힘든 틀을 이론이나 실천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깨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그룹과 시간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같이 커나가요 하고 트여진 물줄기가 수월하게 흐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역할은 통일에 대한 지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훈님은 통일문제와 민노당내의 쇄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토의하고 제시하고 쉽게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신념에 합당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며 재판정에서도 그런 신념이 강하게 뿜어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팔불출이지만 제가 아는 몇 사람 중에 으뜸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통일운동 하면 어쩌면 일정한 사람들이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개개인의 역할을 다 미루고 마는 그런 조건 속에서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내색하지 않고 항상 굳건히 앞으로 발을 내디디는 걸 보면 정신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라 생각되어요 저는 살다보니 적당하게 때도 묻고 하지만 그런 때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구선옥님과 이정훈님이 얼마나 조화로운 관계에 있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이다.

구선옥님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매우 의연하게 대

처하고 있다. 처음에 이정훈님은 아내를 많이 걱정했다고 한다. 제가 제 남편을 아니까 믿음도 있고 이 사람이 통일운동을 열심히 하고 결혼 전에는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한두 번은 이런 일을 겪을 것이고 혹시 자신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할 상황도 있겠다는 각오는 했지만 이번 일은 뜻박이었어요. “구선옥님에게는 이 사회가 예측불가능한 매우 위험한 사회이므로 그래서 개인이 느껴야 하는 압박감은 더욱 클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의연함을 보이고 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은 심문의 단계이고 심문이 거듭된다고 해도 그러나 증거로 쓰여질 게 없어요. 당내의 고유한 당원 활동이 죄가 될 리는 없어요. 그것이 범죄행위인 것처럼 엮어매려고 하는데 어렵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판사가 법률적인 해석으로 문건작성과 심지어 문건 자체를 누구에게 건네는 것 자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데 유죄 판결을 내리는 우스운 상황은 연출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아이들이 어떠한가고 물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남자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 둘 키우면 엄마가 무지막지해져요”

하지만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지금 점잖은 빼고 있지만 집에 가면 확 바뀐다. 보통은 남자아이 둘 키우다보면 거칠어질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있거나 접어드는 때라 그때쯤은 자기 논리나 언어를 가져서 엄마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아빠를 많이 보고싶어 하는데 큰 애는 이해를 하는데 작은 아이는 아빠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수의를 입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나봐요. 아 방학 중이라 한번 데리고 가야지 하는데.....

아빠에 대해서 저는 숨겨야 될 일이 아니므로 항상 아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미문화원 사건과 통일운동에 관한 것 등 비교적 아빠에 관한 것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 해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편이에요.”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때 여느 아이들을 따라 빈 라덴의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미국

의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물이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열 두어살 무렵인데도 아이들이 일정하게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 후로는 아이들이 거의 반미주의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이정훈님과 구선옥님의 조화로운 삶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영민하고 또 항상 보이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반대와 이면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할 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교육방법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구선옥님은 딸부잣집의 3째이다. 연배로 따져보면 비교적 많은 식구라 할 수 있는 7남매인데 도시보다 의식주나 문화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서 형제가 많다보니 이리저리 부딪치며 살아와서 자연스레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터득했다고 한다. 구선옥님은 부딪혀서 다투고 영악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매우 지혜롭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았다.

“자랄 때는 바로 아래 동생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똑같은 일인데도 시각을 달리 하니깐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올바른 지식 사랑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자 해서 자립심을 강조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국고 졸업 후 일상생활을 농사일로 바쁘고 피곤한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두 스스로 해나갔다.

부모가 농사일로 바쁠 때에 형제끼리 집안 일을 자기 능력에 닿는 것대로 각자 나누어서 함께 해나가고 그런 좋은 습관이 고스란히 사회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했다. 아버지가 참으로 좋은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또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자신의 자녀교육관에 많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다. 반면에 이정훈님은 형제가 3명이고 도시에서 살아서 부모의 자상한 손길에 의해 커운 사람이라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아주 자상하단다. 애들을 이불은 챙겨준다든지 잠자리를 돌본다든지 하는 것은 항상 아빠의 몫이고 그 몫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편지를 보내올 때면 반드시 “아이들 잠자리

와 아이들 방 한 번 돌아보고 당신도 이불 제대로 챙겨서 자도록 하시오.” 라고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예측하지 못했던 이정훈님은 처음에는 아내를 많이 걱정했다. 그러나 구선옥님은 이런 불행한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남편이 하던 일을 맡아서 하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고 한다. 오히려 자신이 집안에서 대책없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보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활력소가 되고 남편의 상황으로 하여 침체되었던 기운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한다. 그래서 남편을 안심시키고 비로소 수감 중에도 올바르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서 잘 싸울 수 있게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데 도움을 준 분들이 많아서 기운을 떨어뜨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민노당 동지들은 물론이고 또 예사로이 지내던 이웃들이 항상 격려해주고 성원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김치도 갖다주시는 등 뜻밖에 너무나 귀한 사람들의 정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한다. 구선옥님은 자신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훌륭한 성품에 매우 감격해하고 또 용기를 얻게 되었으므로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한다고 되풀이 해서 말했다.

수감 중에 이정훈님은 후원회에 후원금을 보내주었다. 후원회 제정도 어려운데 책이랑 영치금을 넣어주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지는 않지만 얼마간 후원금을 보내게 되었다며 많지 않아서 되려 미안하다는 말까지 건넸다.

구선옥님은 돈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면 이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되고 돈도 벌게 되어서 정작 돈이 꼭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퇴근 시간을 조금 지난 뒤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처에 있는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곳이 남편의 사무실근처라는 이유로 손님이 되어 맛있는 저녁까지 대접받았다. 많은 말은 나누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구선옥님의 의지는 확고하고 그것이 곧 통일조국에 대한 남편 이정훈님의 의지이며 또한 통일운동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고하게 하여 공안당국이 조작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것임을 새기게 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금강산 산행기

김재선 | 회원



이해도 이틀 남은 12월 30일 새벽 광화문 집결지에 도착하니 반갑고 낯익은 분들이 이미 많 나와 계셨습니다. 6. 15 공동선언과 그나마 남북화해 정책 덕분에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될 것을 실감하니 설레는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 한량없습니다.

8시30분경 광화문을 뒤로하고 버스는 금강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2시 조금 지나 화진포부근 뷔페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시장한 배를 채우고 2시 40분경 드디어 남측 출입사무소를 떠나 현대아산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북측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이동 중 차창 밖의 풍경과 여러 모습들이 금강산 관광에 버금가게 궁금했습니다. 비록 주마간산 격이지만 말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수차례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고 북측출입사무소를 통과했지만 자주 다녀본 길 같기도 하며 오랫동안 익숙한 듯 크게 설레는 마음 없이 편안했습니다. 산과 들이 남쪽과 크

게 다를 것이 없고 요소요소 눈에 띄는 군인들도 동생이나 아들 같이 느껴지고 개울가 얼음판에 뛰노는 아이들을 볼 때 어느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 나이쯤 될 때 확실히 조국 통일이 되어있겠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창밖에 보이는 산들은 대체로 민동산이며 집들이 낮고 허술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넉넉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질서가 있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시로 다 떠난 제 고향 시골마을도 이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고, 이보다 못한 집들도 널려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집들도 많이 있지요. 집 규모나 조상 묘 단장 한 것 보면 그 집 후손들 생활 형편이나 무슨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짐작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지요. 남북으로 철길

은 연결되었지만 정치적인 문제인 듯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았고, 그 철길을 끼고 버스는 달려 금강산 골프장을 지나 장진항에 있는 해금강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북측 출입사무소에서 첫 발을 잠시 디딘 후 사실상 북녘 땅을 밟는 셈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해금강 호텔에 여장을 풀고 휴식이랄 것도 없이 다시 타고 온 버스를 타고 온정리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는 우물이라는 뜻에서 온정리라 불리며 조카를 내치고 왕권을 잡은 조선조 세조 임금이 피부병으로 고생할 때도 가끔 이곳에 들러 온천욕으로 효험을 봤다는 안내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루의 설렘과 여독이 금강산 온천수와 함께 녹아들며 금강산의 첫날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12월 31일 오늘은 금강산 관광 일정 중 구룡연과 상팔담 관광이 있는 날이며 금강산 관광 구역에 하루

종일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날이고,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날씨도 또한 고맙게도 청명하고 따뜻합니다. 예로부터 술한 시인묵객들이 금강산을 배경으로 명문의 글과 많은 산수화를 남겼고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그저 친숙한 산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에까지 이르는 백두대간 중심부 마루금에 자리 잡은 금강산은 지세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으로 구분되며, 서쪽으로는 내금강, 동쪽은 외금강, 그리고 그 여세가 고성앞바다에 이르고 기봉암초를 이룬 곳을 해금강이라고 부릅니다. 절의 수만 해도 8만이 부족해 9암자를 더 보태고, 봉우리 숫자가 일만 이천 봉이라 하니 그 엄청난 규모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금강산은 고려 중엽 화엄경에서 따온 것으로 조선조 초기부터 정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여름산은 신선들이 산다는 봉래산, 가을은 붉은 단풍이 온산을 메우니 풍악산, 겨울은 눈이 하얗게 덮이고, 산봉우리들도 빼만 앙상하여 개골산 또는 설봉산으로도 불립니다. 우리는 그 중 극히 일부인 외금강에 속한 옥류동을 거쳐 구룡연과 상팔담, 그리고 내일 해금강 관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란관 조금 못 미쳐 출발하여 눈이 하얗게 쌓인 옥류동 계곡을 끼고 올라가는데 어느 것 하나 지나쳐 볼 수 없고 절경이 아닌 것이 없어 그저 명할 따름입니다. 자세한 구경은 하산 길에 할 생각으로 서둘러 관폭정 까지 갔습니다. 관폭정은 구룡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잘 지어놓은 아담한 정자입니다. 관폭정에서 본 구룡연은 금강산의 심장이며 대표적인 폭포이기도 하며 100M는 넘어 보이는 물기둥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엄한 절에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듯 깃누른 위압감에 아예 질려버릴 듯합니다. 조금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왔던 길로 내려와서 다시 상팔담을 향했습니다. 반쯤 눈으로 덮인 가파른 철제 사다리를 몇 개나 타고 올라왔는지도 모르게 숨이 턱에 찔 때쯤 상팔담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관광하는 이 지역은 눈으로 덮인 겨울보다는

소와담의 수정 같은 맑은 물과 시원한 폭포의 물줄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가을철이 좋다고들 합니다.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에서 발원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며 암반과 서로 부딪히고, 타협하여 마침내 8개의 폭포가 8개의 신비스런 담을 만들고 담에서 넘친 물은 그 아래 수십 길 낭떠러지로 곧두박질해 구룡연이라는 장엄한 폭포와 큰 못을 만들고 그 여세로 옥류동 계곡을 이루며 신계사 계곡으로 도도히 흘러간답니다. 천 길 낭떠러지 까마득한 저 아래 계곡에 겹겹으로 덮인 눈 속에서도 용케 얼굴을 내민 몇 안 되는 웅덩이는 보는 이의 심장을 멈출 듯합니다. 계란노른자 같은 둥그스름한 웅덩이는 그림을 보고 있는지 실물을 보고 있는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자연의 조화가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스럽습니다.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을 간직하기도 한 상팔담은 하늘나라 선녀들의 목욕도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선녀들의 티끌조차 옥에 티일까 해서입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상팔담에 이르는 곳에까지 외줄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도가 궁금해서 안내원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상팔담 절경에 그만 정신이 나가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필설로는 도저히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조국에 이런 명승지가 있다는 것은 이슬아슬한 행복인 동시에 알뜰살뜰한 하늘의 선물인 듯합니다. 북측 안내원이 가리키는 상팔담 반대편 저 건너 능선에 탱크와 꼭 닮은 바위가 있습니다. 온산이 삼지창처럼 뻗은 봉우리로 가득한 금강산에서는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바위이며,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아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탁 트인 이곳에 있다 보니 분단으로 인하여 반쪽짜리 백두대간만 종주한 저로서는 빨리 통일이 되어서 진부령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남은 구간을 꼭 완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눈에 잘 띄는 암벽에는 여러 구호들이 힘찬 글씨체로 깊게 암각된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신경 써서 자세히 보면 사람 손길이 닿을 만한 암벽에는 몇 백 년이나 지났는지도 모를 오래된 글씨들로 빼곡합니다. 먼저 쓴 희미한 글씨위에 또 다시 새로 온 사람이 깊게 쓰고 하다 보니 글씨가 턱지턱지

붙어서 마치 풍화작용으로 알아 볼 수 없는 오래된 비석 글씨 같습니다. 한 마디로 성한 바위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세계 최대 깡패국가인 미국으로부터 60년이 넘게 경제제체 조치와 전쟁위협 등, 적대시 정책으로 현재까지 고통 받는 북으로서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일체감과 세계 최강의 미국을 상대로 조금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이 저런 구호를 통해 나타나는 듯합니다.

소중한 우리문화 유산 중 역사성과 시대성이 배어 있고, 예술성이 우수한 적지 않은 마애불들도 전국에 산재해 있고, 천하명필들의 글씨도 이름 있는 산천에 암각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 명산에 그저 ‘나 여기 언제 유람 왔다 갔소.’하는 징표 정도로 조잡하게 자기 이름 몇 자 새겨놓은 것과 자연 훼손 운운하며 비교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계속 다리품을 팔고 내려오다 보니, 신계사에 다다랐습니다. 천년이 넘는 고찰은 전쟁 때 미군 폭격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상처투성이 석탑하나만 삐죽 남았습니다. 유홍준 문화재 청장 같은 분은 이 탑 하나가지고도 책 한권도 쓸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터에 남측 조계종에서 불타기전 사진을 바탕으로 똑같이 복원했답니다. 아직까지 법당 등 요사채와 부속건물들의 신축냄새가 원연합니다. 이곳은 남측에서 과전된 조계종 소속 주지 스님이 상주하며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오는 족족 신계사의 유래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신계사 동으로는 문필봉이 정겹고 서쪽으로 담 벼슬 같은 고산준봉이 있는데 바로 조선시대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양식을 개척한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점심은 북측에서 운영하는 목란관에서 선녀 같은 안내원들의 영접을 받으며 금강산 산채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는 정갈한 음식은 맛도 맛있지만 같이 나오는 구수한 숯불 맛은 일품이며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무슨 맥주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맥주와 들쭉술의 궁합은 가히 환상적이라고 기억됩니다. 4시부터 시작되는 모란봉 교예단의 서커스 관람은 그동안 TV를 통해 자주 소개되고 많

이 봐 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 중 교예단 공연을 보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주변의 권고가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구경을 하니 배우들 동작하나하나가 잘 보였습니다. 체격이 좋고 힘이 있어 보이는 단단한 사람들은 밑에서 떠받치고, 힘쓰는 역인데 어깨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올라가니 다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이 공연 끝나고 6시에 한 차례 더 한다니 천하장사가 따로 없고 또한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 아니라 신을 능가하는 기술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고 무슨 마술에 걸린 듯 온통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종목이 다수인데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슬아슬하여 꼭 이런 것을 해야 하나 하며 말리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귀신도 한수 배워야 하는 기술이지만 실수하면 귀신과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배우들은 음악에 맞춰 정교한 동작을 맞추고, 위층에 있는 지휘자는 배우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예의주시하면서 완급을 맞춰 지휘를 하는데 어느 쪽이 우선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와 음악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차원 높은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광경은 안방에서 영상으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예술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공연이 끝나고 우리 귀에 익은 ‘반갑습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며 팔이 떨어져라 서로 손을흔들었습니다. 목이 메고 정말 콧등이 시큰한 깊은 동포애를 느껴 봤습니다. 8시부터 화해와 평화를 위한 송년한마당 행사가 개최되면서 화해와 평화맛이 청사초롱 점등식이 있었고 영상마루 축하마당에 맞춰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며 부담 없이 진탕 놀았습니다.

2007년 정해년 1월 1일은 새해 첫날인 동시에 금강산 관광 마지막 날이며 아쉽지만 서울로 돌아갈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밤 과음 탓으로 다소 몸은 무거웠지만 새해 일출을 보러 해금강으로 향했습니다. 금강산이 뻗어내려 동으로 뚫은 고성평야를 이루고 그 끝 자락 기암괴석이 푸른 동해와 어우러져 그 유명한 바

다의 금강을 만든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검푸른 동해의 수평선을 눈이 빠지게 지켜봤지만 해금강 햇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흐린 날씨 관계로 결국 새해맞이는 접어야 했습니다.

원래 신정 일출맞이는 우리 문화가 아니며 일제가 조선을 강점할 때 따라 들어온 풍속이랍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느 연세 드신 선생님의 설명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다소 섭섭한 마음을 자위하면서 어릴 때 양력설은 왜놈설이라고 어른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삼일포로 가는 길은 대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의 참대나무는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당국으로부터 선물로 십여 그루 받은 것을 그 중 받은 평양에 심고 받은 이곳에 심었습니다. 평양에 심은 것은 날씨가 추워서 실패하고 이곳은 동해의 따뜻한 날씨 덕분에 잘 자라서 이렇게 번성했다고 현대아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참대연구소도 이 부근에 있다고 합니다.

삼일포는 잘 가꾸어진 소나무 숲과 암능으로 된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천연 담수호입니다. 호수 가운데 그림 같은 섬도 떠 있고, 호숫가에 산책로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빼어난 경관으로 속세와 인연 끊고 몇 년 지냈으면 할 누구나 욕심날만한 곳입니다.

삼일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옥류관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아쉽지만 떠날 일만 남았습니다. 날아갈듯 하게 잘 지어진 옥류관은 워낙 알려진 건물이라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낯설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곳의 간판 음식적인 물냉면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솔직히 옥류관의 냉면보다는 남쪽의 짬통 냉면이 제 입에는 더 맞는 듯합니다. 짬통이 명품을 추월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남쪽의 맛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어찌면 당연한지도 모르며 너무 오래 떨어져서 입맛조차 갈라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구와 나이를 같이하고 역겹의 역사를 지켜본 금강산이 볼 때, 조국의 분단은 참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에겐 너무나 큰 고통의 긴 세월입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모순의 뿌리는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분단으로 귀착됩니다.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장애물을 따라가다보면 미국과 그 주구들이라는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견어내고 분단의 벽을 허물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버스 갈아탈 일 없고 휴대전화 맡길 일도 없고, 현대아산이 할 일 없어서 회사가 없어진들 우리민족끼리 양코쟁이 몰아내고 조국 통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알립니다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펼쳐지고 있는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힘든 중에도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83호 북녘어린이 콩우유돕기 후원금

김희선 100,000 안병길 250,000 안병길 400,000 신동철 50,000

■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 예금주 :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FAX : 02-888-4470 ■ E-mail : yangsimsu@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기타()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 2006년 12월 28일 현재 총 91명 ■ 민기협 조사집계 ■ 참고: 현재 출소한 양심수들을 제외한 85명입니다.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결
장석철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06-12-12	공갈			수원구 312	미결
조기현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 공갈, 갈취	3년	항소중	대구구 79	미결
최규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	06-10-02	집시			포항교 3075	미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5	미결
지갑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8-23	업방, 폭력, 집시			포항교 3072	미결
진남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06-08-17	집시			포항교 3071	미결
장재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8-14	집시			포항교 3068	미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4	미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3	미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2	미결
정승중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1	미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상고중	대구교 30	미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상고중	대구교27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3년6월	상고중	대구교 29	미결
유가수	노동자	건설연맹	89 노동자대회(포항)	06-08-14	집시			포항교 3069	미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8/01	대구교 52	기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7/10	대구교 86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12-29	업방, 폭력	10월+8월	2007/06	부산교 874	기결
차현호	노동자	금강화섬노조	노조활동	06-09-29	업방, 특공			대구구 65	미결
김기영	노동자	기아차노조(광주)	한미FTA반대집회(광주시청)	06-11-26	집시, 폭력			광주교 3309	미결
김문섭	노동자	기아차노조(광주)	한미FTA반대집회(광주시청)	06-11-26	집시, 폭력			광주교 3318	미결
김영성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노조	파업	06-10-17	업방, 폭력			수원구 337	미결
한인구	노동자	덤프연대	노조활동 관련	06-12-05	업방, 폭력			평택구 204	미결
허영구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집회	06-12-08	집시, 공방			영등포구 3414	미결
박민	노동자	민주노총	노사관계로드맵 반대시위	06-12-08	집시, 공방			영등포구 3410	미결
박주승	노동자	민주노총	현대아산과정규직투쟁관련	06-10-16	집시, 특공방			순천교 109	미결
김병일	노동자	민주노총(경북)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2년	상고중	대구교 46	미결
정우달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파업(국일여객)	06-11-24	집시, 공갈	10월	항소중	대구교 50	미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06-08-17	집시			포항교 3070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보노조	노조활동관련	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3년+2년+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박홍수	노동자	장흥교통노조	노조활동	06-10-20	업방, 집시	10월	항소중	광주교	미결
고진오	노동자	전교조	교원평가 공청회 관련	06-10-20	폭력			서울구 52	미결
이상대	노동자	전교조	교원평가 공청회 관련	06-10-20	폭력			서울구 82	미결
강상철	노동자	전해투	노시정협의 규탄한국노총항쟁	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2	미결
박상길	노동자	전해투	노시정협의 규탄한국노총항쟁	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4	미결
연재일	노동자	전해투	노시정협의 규탄한국노총항쟁	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5	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노시정협의 규탄한국노총항쟁	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3	미결
김남영	노동자	전해투	노시정협의 규탄한국노총항쟁	06-12-18	폭력	1년	항소중	영등포구 3403	미결
김현호	노동자	전해투	노시정협의 규탄한국노총항쟁	06-12-18	폭력	1년	항소중	영등포구 3432	미결
곽영수	노동자	전해투	노시정협의 규탄한국노총항쟁	06-12-18	폭력	1년	항소중	영등포구 3431	미결
이기용	노동자	전해투	노시정협의 규탄한국노총항쟁	06-12-18	폭력	1년	항소중	영등포구 3434	미결
엄기준	노동자	(주)유성기업노조	노동자대회(11.9)	03-12-10	집시, 폭력	1년6월+2년6월	2007/11	대전교 2999	기결
권수정	노동자	현대차이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06-07-17	민사소송법	8월	항소중	대전교 70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오지환	노동자	현대차이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916	미결
김준규	노동자	현대차이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734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05-11-05	특공, 치상	1년6월	2007/05	순천교 1300	기결
장철호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06-11-25	집시, 업방			대구교 64	미결
김완기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06-11-25	집시, 업방			대구교 92	미결
김동진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06-11-25	집시, 업방			대구교 73	미결
오세용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06-11-17	집시, 업방			대구교 52	미결
조영환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06-11-25	집시, 업방			대구교 63	미결
김대운	노동자	화물연대(전남)	파업	06-12-02	업방, 집시			순천교 268	미결
성기석	노동자	화물연대(전남컨테이너지부)	파업	06-12-02	업방, 집시			순천교 221	미결
손정민	노동자	화물연대(전북)	파업	06-12-06	폭력, 운송방해			장수경찰서	미결
홍종선	노동자	화물연대(제주)	파업	06-09-28	업방, 집시	8월	2007/05	강릉교 579	기결
박경연	노동자	화물연대(충청강원)	파업	06-09-28	업방, 집시	8월	2007/05	안동교 1127	기결
김대상	노동자	화물연대(포항)	파업	06-12-04	폭력, 운송방해			포항교 3076	미결
박재호	노동자	화물연대(포항)	파업	06-12-04	폭력, 운송방해			포항교 3077	미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3-06	병역법	1년6월	2007/09	진주교 1204	기결
장민호	재야	개인	회합통신	06-10-24	국보			성동교 33	미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04-11-18	국보	3년6월	2008/05	광주교 5009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회합통신	06-10-26	국보			영등포구 3476	미결
박철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11-07	병역법			영등포구 2426	미결
손정목	재야	개인	회합통신	06-10-24	국보			서울교 113	미결
김훈대	재야	교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5-22	병역법	1년6월	2007/11	논산교 370	기결
최희정	재야	민권연구소	이적표현물	06-08-18	국보			서울교 241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회합통신	06-10-24	국보			서울교 109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회합통신	06-10-26	국보			영등포구 3413	미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방문	06-10-23	국보			수원교 305	미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7	의정부교 1723	기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5-07-19	병역법	1년6월	2007/01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04-06-20	특기법	1년+6월	추가기소	춘천교 451	미결
강순정	재야	전범민련	회합통신	06-11-28	국보			서울교 197	미결
김태훈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5-17	병역법	1년8월	2008/01	군산교 1215	기결
이용석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8-18	병역법	1년6월	2008/02	수원구치소	기결
김희형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3년	2008/06	홍성교 200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03	화염병, 치사	6년	2009/05	장흥교 11	기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3년	2008/06	경주교 500	기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2년6월	2007/12	목포 22	기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3년	2008/06	안동교 15	기결
오정록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산교 103	기결
송인옥	학생	서울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11-23	병역법	1년6월	2008/05	영등포구 2616	기결
박경수	학생	성공회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12-14	병역법	1년6월	항소중	성동교 1974	미결
김대형	학생	조선대	한총련 불탈퇴(12기)	06-11-22	국보, 집시			광주교 5052	미결
고동주	학생	카톨릭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06-09-21	병역법	1년6월	2008/02	영등포구 2305	기결

01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평화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

장(47세, 대추리 이장)이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일 오전, "지난 3일에 평택미군기지 반대시위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안양구치소에 복역 중인 김지태 이장은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양심수'이며 "그가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국제엠네스티의 입장을 전달하다. 김지태씨는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국제법에 따라 정부는 양심수를 구금할 권한이 없음을 발표하고, "앞으로 양심수 김지태 씨에 대해 국제적인 탄원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다. 엠네스티에서 정의하는 '양심수'란 정치적 종교적 및 양심에 의한 신념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이유로 투옥되거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이들 중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범죄 때문이 아니라 신념 신봉 정체성 때문에 구속된 사람을 뜻한다.



인사동입구 남인사마당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북제재 반대를 염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이들은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스크린쿼터원상회복 등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반전평화초치를 실행하는 한편 평화와 통일로 가야 할 한반도에 대북봉쇄와 공세를 멈추지 않는 미국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비정규직차별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과도한 부의 집중과 독점 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근원을 막고, 사회적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해나간다고 밝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제정58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통일연대 한상열상임대표는 여는 말, 이종린 범남본명예회의장 권오현양심수후원회회장 이해삼 민조당최고위원 등 결의발안과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일련의 공안사건들은 국가보안법의 생명이 끝나가는 필연적인 역사발전의 상황을 부정하려는 수구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하다.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대강당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1주년 출범 기념식'이 열리다. 이날 행사에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을 비롯하여 각부문 진상규명위원장들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허영춘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회장 각종 유족대책위 대표들, 진실화해위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 진실화해위 출범 1주년을 축하하다. 송기인위원장의 기념사, 김창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위원장 등 축사가 있었음. 2005년 5월31일 제정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일 업무를 개시 현재 진상규명신청자수는 10,500여건으로 이중 한국전쟁전후 학살 사건이 600여건 민족독립운동관련 130여건 권위주의 정권시기 인권침해 538건 순이다.

02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김지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평화주민대책위원장을 권오현 김호현 면회다녀오다. 김위원장은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규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더욱 힘을 내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양심수후원회에서 보내준 후원회소식과 영치금에 감사했다.



김호현 양심수후원회부회장이님! 낙성대 만남의 집에 겨울을 맞이하여 김장김치를 선물하다. 남도 특유의 향기와 맛이 넘치는 김치를 보내와 만남의 집 마당에 든든한 겨울양식을 묻다.



종로수운회관 대강당에서 '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창립 발기인대회'가 열리다. 사전행사로 여철연 기념사업회회장의 여는 말. 김지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송기숙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등 축사이기형 기념사업회상임고문의 현시낭독, 유족대표 여인영씨의 감사인사말 등이 있었음. 2부 행사로는 '몽양여운형일대기'인 血濺?水(혈농어수)의 서평을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했고 이어 창립총회가 열려 정관통과 임원선출 등이 있었음

03



한남동 단국대학교 학생극장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16돌 기념대회'가 400여명의 내외 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이경원사무처장 사회로 열리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3대에 국은동의 해로 정한 2006년을 2007년엔 더 활발한 실천으로 미국과의 대결전을 결산하자고 결의하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범민련 역사에 새겨져 있는 민족대단결노선을 6.15 시대의 높이에 걸맞게 대중적 기세를 높이 구현해 나가자'고 호소하다. 특히, 범민련 북측본부는 "조국통일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놓여있지만 6.15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기치밑에 굳게 뭉친 민족의 단합된 힘이 있는 한 6.15 시대 조국통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범민련 남측본부가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통일에 국은동을 힘차게 벌여나 가리라 확신한다'라는 축사를 보내오다. 새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한충련 지도부와 함께 등단한 장송희 한충련의장과 한청 이승호의장의 정치연설, '희망새극단'의 집체극 문예공연 등이 있었고 신용관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김래곤 김재선 한찬욱 이정태회원 함께 하다.



종로 보신각 앞에서'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 회원 약 400여명은 "자이툰 부대 즉각 철수", "레바논 파병 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등 반전·평화의 내용을 담은 집회를 열다. 파병반대공동행동의 정책사업을 담당하는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활동가 장송희 한충련의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또 참가자들은 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에 뜨거운 화답을 보내며 시린 날씨에도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다 한찬욱 김래곤회원 함께 하다.

☞ 해화동 대학로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양극화해소 부동산투기근절 쇄고기 수입중단 한미 저저 제3차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본대회가 열리기전 1500여 소속단체성원이 함께한 가운데 '전쟁위협 한미FTA강요하는 미국반대 민생파탄 노동기본법 말살하는 노무현정권심판 서울지역결의대회'가 열렸고 이어 민노당 주최로 '비정규직확산법 날치기규탄, 광우병 쇄고기 수입중단 촉구 노무현정권심판 민노당결의대회'가 3000여명이 늘어난 가운데 열린다. 이날 경찰의 서울지역 4곳의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한 가운데 열린 민노당 결의대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허영근민노총 부위원장 사회로 제3차 궐기대회가 열린다. 민노총 조준호위원장, 전농 문경식의장 등 결의 발언과 각 부문별 대표들이 단상에 올라 한미FTA 저지 각 부문반대 결의발언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광우병소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갖고 집회를 마친다. 전농소속회원들은 100여명은 총무로 역에서, 전한련 학생 민노당원 등 1000여명은 회원역에서, 민노총노동자들은 동대문역에서 행진에 들어가 모두 4000여명이 행진했으며 밤 7시쯤 명동성당 주변에서 3000여명이 촛불집회를 열었다. 문경식 전농의장, 박인숙 민노당최고위원 등 결의 발언과 문화공연 등이 있었음

☞ 평택 민노당지부에서 일하는 정혜은 회원님이 '만남의 집'으로 평택에서 수확한 쌀 1가마를 보내오셨습니다. 평소에 양심수후원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또 평택지역에서 회원 가입을 도와주시는 등 여러 가지 후원회를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만남의 집에 계시는 출소장기수 문상봉 선생님의 82회 생신이 있었습니다. 민가협 조순덕어머님이 오셔서 생신상을 차리는데 도와주셨고 김호현 후원회부회장이 꽃다발을 마련했습니다. 약소한 선물을 마련하고 함께 케익을 자르고 생신을 축하해드렸습니다. 김영식선생님 권오현 임선영 임미영 함께 했습니다.

07 -----
☞ 민가협 643회 집회가 서울 종로 답골공원 앞에서 열린다. 권오현 공동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해서 돌아보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임기란 운영위원의 강순정선생님의 석방촉구 발언이 있었음

☞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후원회 주최로 '범민족본부후원의 밤' 행사가 300여 후원자가 함께한 가운데 열린다. 이규재의정의 감사인사말, 임종철후원회공동대표의 인사말, 문경식 전농회장 민노총조준화위원장 민노당 김은진최고위원 양정수 대회협력위원장 등 축사와 홍근수 평통사공동대표 추모연대 박중기의장 조준선 사월혁명희생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대표의 축배제의 등이 있었고 노래단 '희망새'의 문화공연들이 있었음

☞ 이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한미양국이 개념계 획

(CONPLAN5029)를 완성키로 합의한 것을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담화에서는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의 개념계 획5029환성책 등은 우리공화국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낸 용납못할 도발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의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그 무슨 핵문제 평화적 해결이란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기만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성군으로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한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고 한다.

08 -----

☞ 서울 조계사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종교단체는 민중생존권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는 한미FTA협상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권리인 집회의 자유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미FTA협상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또한 경찰이 3차례 진행된 민중총궐기를 원천불허한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초보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부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역사의 퇴보"라고 규정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초헌법적인 불허조치에 대한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하다.

☞ 일산에 계신 비전향장기수 신현철선생님의 일산 백병원 등 병원진료와 건강검진에 한찬욱운영위원 하루 종일 함께 하다.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명동 세종호텔 4층 '해금강 홀'에서 '민족공동행사백서출판기념회'를 열다백낙천 상임대표의 인사말 한광도천도교교령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축사와 민족공동행사 사진 및 동영상상을 담은 영상물 상영 문예공연 등이 있었음

☞ 검찰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하여 오후 2시 (안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제2차장)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간첩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히다. 이번 사건 공동변호인단은 기소는 검찰의 의견일 뿐이며 간첩 혐의 등에 관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이라며 "공안당국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 행태를 지속했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문제를 제기할방침"이라고 천명하다.. 현재까지 장민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국정원과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를 비롯하여 종교계 인사와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지태 위원장석방!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다. 통일연대 한성열대표 불교환경연대 부집행위

원장 지관스님과 원불교 부안교당 김인경 교무전능 문경식의장 열린 우리당 임종인의원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 등은 발언을 통해 “김 지태 위원장은 법에 의해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다. 또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수감된 김지태 위원장에게 띄우는 격려와 청와대 및 2심 재판을 앞둔 고등법원에 보내는 탄원의 내용을 담은 엽서를 작성하고 “평택미군기지확정에 대한 전면적 재협상에 임하라”는 성명을 이규재법남본의장이 낭독하다. 이 선언에 각계인사 218명이 함께하다.

-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인권선언 58주년을 맞이하여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임기란(76.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 상임의장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이, 곽병은(53) 원주교도소 보건교과장에게 근정포상이 각각 수여되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와 민주사법국민연대, 한센병보상청구소송 일본 변호인단, 국방부 김의식 중령과 경찰청 이승규 경위 등 15개 개인 및 단체가 인권위원회 표창을 받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채택, 선포한 것이다

- 종로1가 종각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주최로 소속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여 '국가보안법폐지와 공안탄압분쇄 결의대회'를 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향린교회 나성국목사, 반전반자본 운동단체 '다함께' 전지운 운영위원 등 각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던 바로 그해,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도 탄생했다”며 “평택과 포항에서 벌어진 가공할 인권 탄압, 대추리 주민대표 김지태 이장 실형, 비정규악법 날치기 통과, 최희정·강정구·강순정·이정훈 등 국가보안법 관련 기소자 등을 두고 '세계인권선언 58주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국정원, 보안국,公安부를 민주적으로 재편 또는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작금의 공안탄압을 중단시키는 투쟁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다.

- 세종대학교 세종홀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로 '열여덟번째 인권콘서트'가 열리다. '달리기 시험은 이제 그만'이라는 토끼와 거북이의 불평등 경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권해초 최광기씨 사회로 전인권 김중서 권진원 정태훈 박은옥 크라이넛 오리촌밴드 등 공연이 이어지다. 이어 21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은 함주영씨를 비롯한 조작간첩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이른바 진도사건 박동운 등이 나와 인사를 했고 간첩누명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 세상을 떠난 박경륜씨 따님 박미옥씨가 편지 낭독을 했음. 마지막으로 각 분야 인권침해자들이 민가협회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인사하였으며 이영 민가협상임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고 함께 가자우리 이

길을' 노래부르며 마치다.

- 10 2006년 회원 송년 모임 있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자리한 '새서울주물럭'에서 송년모임에는 장기수선생님들과 사회단체성원과 민가협 어머님과 회원들 1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고성화선생님과 민가협 이영상임의장의 격려 말씀에 이어 사회단체로는 이규제 법남본의장,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즐거운 식사와 식사 후 회원들의 흥겨운 노래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시거나도 함께 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같이 따뜻한 마음의 전합니다.

- 대전에서 진행된 전민특위 남측본부 진상조사단 1차모임에 이경태 한참유원회운영위원이 함께 하다.

- 11 ● 청와대 부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평통사들 공동으로 '굴욕적인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 철회 촉구 국무회의 의결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제 법남본의장의 여는 말 박석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빈미여성회 장수경 집행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한미양국은 지난 6월 2007년부터 작동하는 방위비분담금 7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7,255억원으로 타결지었음. 기금액은 2005.6년 분담금(매해)6804억원보다 6.6%인 451억원이 증가한 액수임

- 부산에 살고 계신 양심수후원회 임미영사무차장의 어머니이신 이무연님께서 11일 오후 병환으로 7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하여 울산의 선영에 모셨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부회장 모성통원위원위원과 임선영 양인철 김필호 이재현 모지희 회원이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12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서 평통사 등 평화통일운동단체들 공동으로 '제 87차반미연합집회'를 열다. 6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증액 개념계획 5029의 구체화 이라크파병연장안' 등을 집중규탄하다.

-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로드맵 강행처리에 대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또 한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4일부터 양일간 다시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투쟁방침을 발표하고,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계획을 좌초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치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광화문 우체국 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부기 12월 모임을 갖다. 이번 영화는

‘민족과 운명’ 제29부(노동계급 편 제5부)이었고 통일광장 김수룡선생님과 강덕환 김래곤 이순영 최덕희 한찬욱회원 등 15명이 참석하고 이북영화보기 100회 기념 뒷풀이를 하다.

국회 국방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감축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15표, 반대 1표로 정부안을 통과시키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동의안은 현재 2천300명 규모인 자이툰 부대를 내년 4월 1200명선으로 감축하고 파병을 1년 연장하되, 내년 중 철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의료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민주공원건립국민추진위원회(이하 민건추)가 결성되어 민주화 운동에 생명을 바친 열사들을 기념할 민주공원 건립 사업에 첫발을 내디디다.
이병주집행위원장 진행으로 나무 닭 움직임연수와 장소익씨의 부내 굿 영상물상영 등이 있었고 추진위 공동대표인 박종기 추모연대의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오현 공동대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조직의 규약을 승인하고 임원 및 공동대표단을 선출하다. 민주공원 조성 사업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추진된 국책 사업으로, 2004년만 해도 49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지만 지자체 및 특정 지역 단체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민건추 공동대표로 추대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의 축사가 있었고 공동대표 가운데 부지지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민조 유기협이사장, 위원에 박종기 권오현 정동익 공동대표를 선출하다. 정광훈공동대표가읽은 그 창립 선언문을 통해 “이 사회의 양심과 정의의 힘을 모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민주와 인권, 정의와 평화의 상징이 될 민주공원 건립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히다.

영등포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노동뉴스스튜디오에서 ‘평택아리랑’이란 이름의 ‘평택투쟁 1년을 돌아본다’라는 주제로 김요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평택대책위 상임대표와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정용준 민중연대자주평화국장이 생방송 좌담회를 갖다.
이미 100여회에 이르는 세계 최장기 주민촛불문화제의 의미와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의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키려는 강한의지 김지태위원장에게 주어진 국제사면위원회의 양심수규정의미 군부대 투입을 비롯한 부당한 공권력에 맞선 지난 1년간의 평택투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1시간동안 좌담회를 갖다.

영등포 전교조소회의실에서 ‘미군범죄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9차운영위원회’가 열리다. 성원점검과 위원장 인사에 이어 보고안건으로 남측본부 진상조사단 2차워크샵, 정유미사무총장 2

차검진결과 보고 등이 있었고 논의안건으로 통일연대의 진보진영상설연대체 건설제안에 관한 건 정유미동지 치료비 대책 등을 논의하다. 용산철도웨딩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른바 ‘일심회’ 사건 후원의 밤 행사에 함께 하여 국가보안법폐지와 관련자 석방촉구 가족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확산법 전면무효! 노동법 개악안강행저지! 총력투쟁 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하다. 이날 결의대회는 총파업 투쟁의 구심이었던 금속노동자들과 70여명의 간부 식발투쟁으로 투쟁을 이끌어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뤘으며, 건설연맹 등의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뒷받침하는 형식으로 약 60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4일째 국회 앞 노상 단식투쟁 중인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역사가 우리의 투쟁을 정당하다고 평가할 것이며, 계속되는 우리의 투쟁은 투쟁을 접기 위한 것이 아닌 현장을 조직해서 일대 반전을 꾀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며 “파업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지만 우리가 현장을 조직하고 또 조직해서 민주노총이 살아있음을, 반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고 호소하다.

일제식민지 지배에 맞서 항일운동을 했고 해방공간에서 자주정부를 수립 등 활동을 하다 이북으로 가서 무역성 부상 등을 역임했으며 박정희군사쿠데타 이후 남북통일 협상을 위해 밀사로 내려왔다가 체포, 군사정권에 의해 처형된 ‘고 황태성선생’ 탄생 100주년과 서거 43년을 맞아경북상주고인의 묘소에서 추모행사를 갖다. 박종기 추모연대의 장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 등 추도사와 이기형시인이 추도시를 읽은 일꾼이 낭송하다. 고인의 질녀 임미정여사와 질녀서 권상능선생 등 분향제배를 하고 생전의 고인을 회상하고 추모하다.40여명이 함께 하다.

서울 고법형사 항소4부(재판장 김한용부장판사)심리로 ‘통일전쟁론 등 필화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적용반아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정구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리다. 검찰은 1심에서와같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하다. 이에 심지화변화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복의 ‘대남적화전락’과 ‘북위협론’ 등을 사실오인이라며 정면반박하다. 강정구교수는 원고지 450매 분량의 최후진술에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중심주의라는 대법원 지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충분한 심리없이 결심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내용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1심에서 반학문적 윤리를 강요한 점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문 점을 지적하고 무죄를 주장하다.

도하 시내 카타르스포츠클럽에서 열린 ‘2006 도하아시안게임 여자축구 결승전’에서 이북의 여자축구가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하다. 김광민 감독이 이끄는 이북의 여자축구대표팀은 숙적 일본을 맞아전 · 후반과 연장 120분을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

2로 승리해 금메달을 따낸다. 2002년 부산대회에서 우승한 이복은 대회 2연패에 성공해 아시아 최강의 실력을 입증했다.

민기협 제 64회 목요집회가 종료 답글공원 앞에서 열린다. 임기란 운영위원의 여는 말과 파병연장 반대 여성행동위에서 함께 하다. 서경순위원의 파병반대 평화실현 촉구 발언에 이어 여성평화활동가 윤신의 노래가 있었음. 집회를 끝내고 인사동 들머리까지 진행함

15 -----

☞ 수원지방평택지원제 1형사부(재판장정지용부장판사)심리로 김용한 정광훈 한상열 대표를 평택지검이 21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후원회소식102호 참고)

☞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줄속적으로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하며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 그동안 정부측은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이 '국가간의 약속'이라며 협정문에 명시된 2008년까지 '임무완수'를 위해 2005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 강제수용 조치, 2006년 3월 영농금지를 위한 농지 토굴 조치, 5월 물리력을 동반한 대추분교 철거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조치, 9월 빈집 철거 조치 등 예정된 수순을 공권력을 통해 차차차 수행해 왔다. 정광훈민중대표의 여는 말 평택 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은 발언을 통해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줄속협상을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평택 범대위는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회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당국이 시기 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여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앞두고 베이징에 도착한 이복대표 김계관 외무성부상은 기지를 질문에 '핵문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바꿀 때 해결될 수 있다'며 핵무기는 우리가 미국의 침략에 대처하여 핵위협에 대처해 억지력으로 만든 것이다. 억지력이 필요한 한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이유는 없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의 다른 공약들은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자면 우리에게 대해 가해진 제재가 해제되는 게 선행조건이다'라고 말한다.

16 -----

☞ 16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파병반대 국민행동에서 주최한 '자이툰 부대 철수와 레바논 파병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에는 평화재향군인회 소속 60대 노인 회원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까지 50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2007년 자이툰 임무 종결'이라는 당론까지 어기며 정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동의해준 열린우리당은 '파병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바람잡이'라고 규탄한 뒤 '새해에는 자이툰 병사와 떡국먹자', '평화 원츄(want you)', '자이툰 부대 You must come back home' 등의 문구가 적힌 손수 만

든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인다.

17 -----

☞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서거 45주년(12.21)을 맞아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주최로 남한산성 고인의 묘소에서 45주년추모모임이 있었음전무배 진상규명위공동대표 김병태 한국농정신문 고문 등 추도사가 있었고 유족을 대표해 조용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1.28일 국가의 진실이 규명된 반인권적 반민주적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기본법 제4장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조용수 및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심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음

☞ 저역 평택역 앞 '김지태 위원장 석방과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를 위한 송년문화제'가 열린다. 송년문화제에 모인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은 올 한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전면적 공세에도 주민들과 함께 그 시련을 이겨낸 한해였다고 올 1년을 평가하다. 오종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전국민증언대 정광훈의장 진경호 민주노동통일위원장 문성현 민주노동당대표 이주희 민주노동당학생위원장 여름 '평화바람' 활동가 박래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송년문화제에서는 한결같이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고단하고 힘들었던 투쟁을 치하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며 평택이 이길 때까지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다. 시민 류유희 씨가 빈들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평택 푸른학교의 어린이들이 앙증맞은 노래와 노래패 '아름다운 청년'은 '평화를 원해'라는 노래를, 대학문화연대 율동패 '이모션'의 율동과 가수 오지훈이 공연을 펼치다. 평택범대위 문정현 상임대표는 내년 2월(5차 평화대행진)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놓자고 말한다. 그리고 "김지태 위원장의 석방시켜 주소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그 땅에 계속 살게 해 주소서" "내년에도 농사 짓게 하소서"라는 소망을 담은 천여 장의 소지천을 태워 올린다.

☞ 대학로에서 이주민 협약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버마, 태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고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린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유지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강제단속 추방은 물론이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와 각종 차별을 부르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다. 민주노동당 진영옥 부위원장장과 민주노동당 당변혁의원, 이주노동자 아누아르 위원장 등이 이주민과 함께 한 가운데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한파에도 아랑곳없이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대회를 신명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다.

18 -----

☞ 민주공인 건립과 관련 경기도 이천시장이 이천시역 내 유치제와 면

담 요청으로 민주공원건립 법국민추진위원회 강민조 권오현 공동대표와 박희영 사무처장이 이천시청으로 조병돈 시장을 면담하고 모기면 원두리 진기리 일대를 답사하다.

19 제5차 6차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 다오위타이 17호 각국평의회위원회에서 개막식이 있었음 의장국인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1.9.19공동성명의 구체적 조치들에 관한 전면적인 이행을 토의하고 확정하는 문제 2.919공동성명의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토론하고 확정하는 문제라고 하다. 이어 이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계관 단장은 '조선반도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언이고 최종목표이며 현 단계에서 핵무기문제를 논의코자할 경우 핵군축회담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미국측이 금융 제재해제 919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제재 등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이행방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건이 성숙되면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포기논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내 대북적대시 법률 제도적 장치철폐 유엔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또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성 때까지 대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하다 북측은 또한 제재압력이 강화 지속될 경우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인내와 한계를 초과했다며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미.북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시에만 가능하고 밝하다.

19 제5차 6차회담 2단계회의의 이틀째인 이날 오후 오후광철 조선무역은행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이북대표단과 대니얼 그레이저 미재무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측대표단이 주중국미국대사관에서 북미1차 BDA(방고델타아시아) 회담을 열다. 또한 6차회담 회담장인 다오위타이에서 북미양자회담이 이루어지다.

20 오전 11시 평택시청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평택대책위원회(평택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평택시가 평택시민과 평생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강제철거 등 무리한 기지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건설 완성시기를 둘러싼 국방부와 보수언론들의 떠넘기기식 주장과 무리하고 강제적인 집행에 대해 평택시민과 평생주민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또한 평택기지건설사업이 대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평택지역 경제와 정부지원을 과대포장하기에만 열을 올린 평택시도 수용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다시는 강제철거 같은 무리한 사업집행이 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다.

20 소식지 제 182호 최종교정본을 창미디어에 넘기다. 권오현 임미영 함께 하다.

20 민가협 어머님들이 오셔서 만남의 집 선생님께 맛있는 이북식 만두를

빚어대접하였습니다. 만두속과 만두피를 손수 빚으셔서 만두국과 찐 만두를 만들었는데 정말 아무데서나 먹어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오랜만에 맛있는 만두를 맛보는 기회였습니다. 바쁜 중에도 늘 선생님을 챙기시는 어머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 -----

20 남북공동실천연대는 한나라당 염창동 당사 앞에서 '퇴장! 한나라! 판 나라! 정치기생충 한나라당 2006 결산대회'를 열다. 실천연대는 한나라당을 '냉전 기생충, 매국 기생충' 등에 비유하며 "당장 당을 해체하라"고 맹비난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기생충인 한나라당을 박멸하자'는 내용이 담긴 상징의식을 행하다.

20 용산군방부앞에서 평택범대위주최로 김지태위원장장석방촉구 및 법원의 인도가처분 결정규탄기자회견을 열다 임기란 민가협전강인의자의 여는 말, 한성열 통일연대 상임대표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 민변사무차장 등 규탄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낭독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모형 크리스마스트리에 김지태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엽서를 꽂은 퍼포먼스를 하다.

20 19일에 있었던 북미양자접촉에서 미국은 핵폐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상응조치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수정안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이날 보도되다. 미국의 방안은 *동결단계(원자로 가동중지 IAEA사찰허용)에서는 서면화된 체제안전보장이나 종전협정 서명 등 북의 안전보장조치가 제공되며 *신고단계에 가야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다.

21 -----

21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라 불리우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 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심리로 오후2시부터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5명의 검사, 7명의 변호인, 그리고 100여 명의 방청객들로 꽉 찬 법정은 공안정국에 돌입한 변호인들과 검찰측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다. 검찰측의 억지와 모순된 간첩판들기식 모두발언에 맞서 변호인단은 간첩조작사건에 많은 인력과 물량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의미나 배경을 충분히 검토해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하다. 장민호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최기영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좌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정당한 법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사건이 사이버 간첩단 사건이자 명백히 진보진영에 대한 백색테러이며 국보법의 존재에 대해 통분을 느끼며 자신들이 국보법의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라다고 밝히다. 한편, 방청객 100여 명은 피고인들이 등장할 때, 모두진술도 종과끝날 때마다 "힘내라"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 판사로부터 주의를 받다가 급기야는 민노당원에게 감지명령을 내렸다가 방청객들의 항의로 주의조치로 마무리되기도 하다.

21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 645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상임위원장의

여는 말과 고유경 주미분 사무국장의 김지태의장의 석방촉구 발언이 있었음.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구속된 송인욱님의 감옥에서 온 편지 낭독이 있었음

☞ 민주노총과 전농, 전빈련 등 진보진영의 주요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갖고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과 전농 문경식 의장, 전빈련 김흥연 의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통일연대 한성열 상임대표 등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한국진보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다. 한국진보연대(준)은 △민족자주(강대국의 패권주의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6.15공동선언 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 △국제 진보적 평화세력과의 연대 등을 기본 투쟁강령으로 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본 조직 출범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일심회' 사건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구속된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사건(최희정) 등 올해 남한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사례를 거론하면서 반통일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이 신문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인 모략소동'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모략적인 간첩사건 소동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심상치 않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6.15통일시대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친미사대와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 세력의 음모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현실은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가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의 음모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단결의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22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에다 발암물질까지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미FTA 협상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참가자들은 다이옥신의 치명적 위험성을 거론하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발암위험물질까지 포함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의 입에 넣으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다.

☞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교조 이성대선생님 면회를 하다. 이성대선생님은 교원평가 문제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은 좋아보였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라고 격려했다. 강순정선생님 면회를 갔으나 다른 분이 예약되어 있어 못하고 인사편지만 써서 보내드린다.

☞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심리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평성주민대책위 김지태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변호인

(이덕우)의 김지태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심판결과를 항의하고 항소이유의 설명이 있는 다음 서명수재판장의 직접신문에서 김지태위원장은 국가사업이란 이유만으로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비용을 산출하고 기지를 옮기는 부분에 설명없이 그저 땅을 내놔라 했다. -이러한 통보는 정당하다'라고 변호인측은 각계각층의 석방탄원서와 김위원장을 양심수로 서명한 국제사면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다

☞ 지난 18일부터 베이징에서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의장성명만으로 휴회에 들어가다 회의가 끝나고 김계관 북측대표단자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제재부터 해제하고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 해제에 대한 행동적 조치없이 우리핵시설 가동중단과 검증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고 우리의 제안을 돌아가서 깊이 연구해보라고 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에 크리스토퍼 힐 미측수석대표는 '우리가 추진해온 9.19공동성명에 대한 사인들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데 실망스럽다. 북측은 불법금용거래문제로 평양정권을 고립화시키려는 미국의 제재조치를 완화하려는데 집착했다'고 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지 제 182호 발송작업을 하다. 문상봉 안학섭 선생님과 조순덕어머니 권오현 임선영 모지희 임미영 함께 하다.

☞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서 중앙단체 한해사업을 돌아보는 기획사업에 따라 민중의 소리취재부기자가 낙성대 만남의 집에 가서 권오현 회장님과 양심수후원회를 취재하다. (소식지 참고)

☞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관하여 전국에서 상경한 민주노총 산하 연맹 간부들은 비상총집결투쟁대회를 개최하여 노사관계로드맵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규탄하다. 오후 3시 30분경부터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노래에 맞춘 몸짓패의 깃발문예공연으로 시작된 본대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해에는 조직적 요구를 쏟아낼 것이며 강력한 파업투쟁으로 승리를 다짐하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격려사와 민주노동당과 민중단체 지도부도 함께 연대의 의사를 밝히다. 결의대회의 마지막 순서는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의지를 담아, 국회 상징물에 대한 화형식을 하는 것으로마무리하다.

☞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다. 국회는 이날 재적 190, 찬성 114, 반대 60, 기권 16표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을 재적 175, 찬성 119, 반대 34, 기권 22표로 통과시키다.

☞ 국회 앞에서는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이 국회 본회

의 통과를 규탄하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정부의 미국 이익에 우선되는 정책과 국회의 어리석은 승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라크의 '재건'을 원한다면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 3 -----

광야교회 안병길 목사님(회원)이 연말을 맞이하여 집에서 사육한 개와 닭고기를 마련하여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선생님들께 점심식사를 배웠습니다. 그 자리에는 문상봉 김영식선생님과 또 멀리 일본에서 오신 이철선생님 또 류종인 류정식선생님이 자리를 함께하여 회포를 풀었습니다. 민가협어머님들과 또 단국대법사학회에서 참석해서 자리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또 민가협의 식구인 박환양님이 귀한 대금연주와 멋진 기타연주로 오신 분들의 흥겨움을 더하여 환호를 받았습니다. 김 호현부회장의 구수한 진행 속에서 안병길회원이 임객정을 구성지게 불렀고 이철선생님의, 좀처럼 듣기 힘든 노래를 강력히 요청에 못이겨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지로서 다만 한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또 단대법사회 주점에서 마련한 기금을 후원회에 기부하여 후원회 재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2 5 -----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안병길목사님이 담임하는 광야교회에서 성탄 특별예배가 있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원이기도 한 안병길 목사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 속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민중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날 안목사님은 설교에서 낡은 것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가장 현실적인 새것으로 인식 전환을 교회와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은 광야교회 교우들과 함께 양심수후원회에서 김지영 김호현 부회장 서미라 김혜은 모교회 회원과 아이들 권오현이 함께 했고 민가협어머님들과 정토회에서 법륜 유수스님 등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한 만도국과 김호현 부회장이 가져온 복분자 과일 등을 나누면서 묵었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광야교회에서는 이날 들어온 성금을 복녜어린이 콩유유 돕기에 보냈습니다.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강민조 유가협이사장님의 딸 강선미양이 신랑 박장렬군을 맞아 부모님과 친지 축하손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화촉을 밝혔습니다. 두분이 한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6 -----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 홀'에서 제 17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주한행사위원회 주최 추모연대 전국 국어교사 모임 전교조 등 공동주관으로 제 2회 민주열사의인 독서감상문 수상작 시상식'이 있었음.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박종기 추모연대 의장의 여는 인사말, 이형숙 추모연대사무국장의 경과보고, '작은책' 대표 안건모 심사위원의 심사평들이 있었음. 이어 권오현 상임대표, 강민조 유가협이사장의 축사와 축하공연이 있는 다음 고등부 중등부 초

등부 학생들의 시상식이 있었음. 이날 학교사정으로 모든 수상자들이 다 참석하지 못했고 고등부에서는 우수상 수상자 제주대정영고 1학년 김경희(민중의 함성이 울려 퍼진 광주속으로) 등 5명 만이 수상하게 되었음

서대문지하철 역 음식점에서 올바른 과거사법 제정 범국민위원회 주관으로 과거사법 관련 위원회와 추모연대 계승연대 피해단체와 각 실무자 등 30여명이 모여 올바른 과거사진상규명 1년을 돌아보고 새해 다짐을 확인하는 송년모임이 진행되다.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각 과거사법관련조사위원회 등 차례로 1년 평가와 다짐을 말하는 시간을 갖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다.

평택 팽성읍 대추리 농협창고에서 °성탄미사 및 문정현신부사제서품 40주년 기념식'이 열리다. 대추리주민들과 함께하는 성탄미사에서는 천주교전국사제단 32명이 공동집전했고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문정현 신부의 사제서품 40년을 축하하고 대추리 싸움의 승리를 기원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추리 사진작가 노순택씨의 부인 김평씨가 문정현 신부의 대추리 삶을 그리 동화책 '신부님 평화가 뭐예요'를 문신부님께 드리다. 이어 신부님의 손품공 반주에 맞춰 참가자들이 함께 '노을'과 '고향의 봄'을 부르며 사제단이 마련해온 음식으로 작은 마을 잔치를 벌이다.

2 7 -----

오전 9시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노동당의 이정훈님을 부인 구선옥님과 함께 면회를 다녀오다. 오후에는 '노사정합의 규탄 한노총항방'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어 항소 중인 김남영님을 영등포구 치소로 면회 다녀오다.

종구거리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한미 FTA저지를 위한 2006년 마지막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해가 저물고 바람이 불어 기온이 떨어지던 강추위 속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한미FTA저지 범 국민 송년문화제에 참석하다.

이날 송년문화제에서는 마지막 촛불문화제 자리로 2006년 한해의 투쟁을 돌아보며 2007년을 새롭게 준비하자는 발언이 이어졌다.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이경규부회장 등은 발언을 통해 한미FTA협상이 우리의 생명 문화 주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강조하며 2006년의 투쟁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FTA를 실질적으로 저지하도록 힘을 모으자고 한 목소리를 내다.

특히 이날 송년문화제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대거 참가해 주를 이뤄 한미FTA협상저지운동에 큰 힘을 싣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법국본)는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가 '잔꾀'를 부려 미국의 법개정이 필요없는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를 얻어내는 것을 큰 성과인양 기만하는 정부의 협상태도를 비난하고 정부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

고 지난5차 협상에서 미국측에 '다 수용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관두든지' 하라고 요구한대로 한미FTA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28

☞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후원단체인 '고난모임'에서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통일할아버지(문상봉 안학섭 김영식 이성근선생님)를 방문하여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함께 과일을 나누며 현시국과 이 땅의 양심있는 사람과 통일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양심수들과 장기수선생님들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임성원들은 선생님께 이른 세배를 드렸습니다.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평성주민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대추리 이장)이 출소하다. 구속 209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가족과 주민들 품으로 돌아온 김지태위원장은 마을사람들의 환영 속에 가족들과 재회의 눈물을 흘리다.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별안간 나오게 되었다며 그 간에 마음 고생이 심했던 가족들을 위로하며 사람들의 인사를 반기에 부주한 모습이었다. 김위원장은 가석방상 태에서 2007년 1월 17일 공판을 받게 된다.

☞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민호 씨의 2차 심리공판이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른바 '일심회'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장민호씨는 이날 검찰측 심문 과정에서 '일심회'의 성격이나 복측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다. 또한 '포섭' '학습' '지령' '지시' 등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복을 통일의 주체로 봤고 복과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이라고 하다. 이날 법정에는 보수단체 회원 140여명이 방청, 재판 시작 전부터 옥살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고 변호인단에게 옥살을 퍼붓는 행패를 부리다가 재판장으로 부터 퇴정 명령을 받기도 하다..

☞ 홍익대학교에서 국가보안법 등 위헌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민권연구소 최희정 상임연구원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다. 통일연대 실천연대 소속회원과 각계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최연구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윤한덕 실천연대 공동대표 권오현양심수후원회대표와 새로 뽑힌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국가보안법폐지과 최연구원 등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등 정치연실이 있었음.

☞ 탑골공원 앞에서 민기협 제 64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상임위원장의 여는 말과 김영란 실천연대 활동가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최희정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재판진행 상황 보고가 있었음

☞ 파주 보광사에 비전향장기수 묘역 조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송천업 부장검사)는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 위반)하다. 검찰은 또 고인이 된 비전향장기수들

의 묘비 비문에 '전향을 하지 않고 당신의 지조를 지키며 빛나는 생을 마치다',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전사 하녀된 조국산천의 봄꽃으로 돌아오소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이들을 찬양(?)했다고 주장하다. 당시 묘역에 묻혔던 류낙진, 최남규, 정순덕, 금재성, 손윤규, 정대철 선생은 20여년이 넘는 세월을 0.75 평 남짓한 감옥 안에서 온갖 고문과 협박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았던 분들로 무덤을 파헤친 자들이 아니라에 국열사들의 정신을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현 정권이 지금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고 최후의 발악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28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실천연대가 주최하는 미국의 전쟁책동과 경제침탈을 막아내고 자주통일 실현을 염원하는 2006년 마지막 금요집회가 열린다. 이들 참가자들은 핵실험 공격계획으로 북미대화와 경제침탈로 우리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고 대북제재와 적대정책을 더욱 노골화하는 미국을 비난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철수하여 이땅의 평화를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주요 사건을 되돌아보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징'을 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하다.

30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주최로 12월 30일부터 2007년 1월1일까지 2박3일 '송구영신 및 새해맞이 금강산기행' 행사가 있었음. 615남측위에서 540여명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800 여명이 함께 한 새해맞이 행사는 어떠한 긴박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이행과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와 실천하는 본보기로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30일 아침 8시 광화문을 떠나 이날 오후 남측 북측 출입국 사무소를 거쳐 금강산 각 숙소에 도착했고 31일에는 구룡연 상팔담 관광-송구영신 맥막이 연날리기 교예관람 등이 있는 다음 저녁에 6.15남측위 주최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송년 한미당을 진행하며 화해와 평화?이 청사초롱 점등식과 영산마루 축하마당으로 2006년을 보냄. 2007년 새해는 오전 6시 30분부터 금강산 해금강지역으로 1800 여명이 모여 저마다해돋이를 기다리며 동해의 수평선을 지켜보다. 7시30분 해금강해맞이 행사는 백낙청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새해인사말 북측위 정덕기부위원장의 답사형식 새해 메시지가 낭독되다. 참가자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로 받아안고 새해소망 소지를 새끼줄에 매어달다. 그러나 구름이 동녘하늘을 뒤덮고 있어 일출장면은 볼 수 없었음. 이어 가까이에는 관동 8경에 속하는 삼일포 관광을 하다. 오전 행사를 모두 마치고 금강산에서의 이번 기행 마지막 점심을 북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평양 옥류관 금강산 분점에서 냉면과 떡볶이를 2박3일 일정의 여운을 남기다. 오후 1시 온정각을 떠나 민족의 아픈 상처 휴전선을 넘어 밤 11시 서울에 도착하다. (관련기사 참고)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송착학 주경임 아이들 김재선 강덕환 손일손 배범수 권오현 함께 하다.